

## 4. 2016년 주요 지표범죄 분석

### 가. 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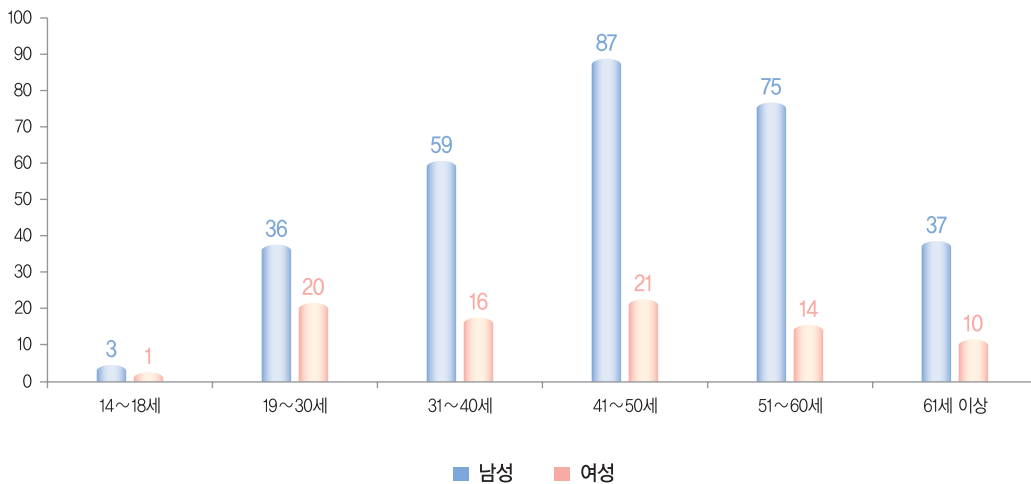
〈표 - 17〉 살인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연령	구분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 - 18세		3	1.0	1	1.2	4	1.1	14	2.5	1	1.6	15	2.4
19 - 30세		36	12.1	20	24.4	56	14.8	62	11.2	16	26.2	78	12.7
31 - 40세		59	19.9	16	19.5	75	19.8	102	18.4	14	23.0	116	18.8
41 - 50세		87	29.3	21	25.6	108	28.5	167	30.1	10	16.4	177	28.7
51 - 60세		75	25.3	14	17.1	89	23.5	137	24.7	12	19.7	149	24.2
61세 이상		37	12.5	10	12.2	47	12.4	73	13.2	8	13.1	81	13.1
미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297	100.0	82	100.0	379	100.0	555	100.0	61	100.0	616	100.0

※ 성별 미상의 경우는 제외

〈그림 - 19〉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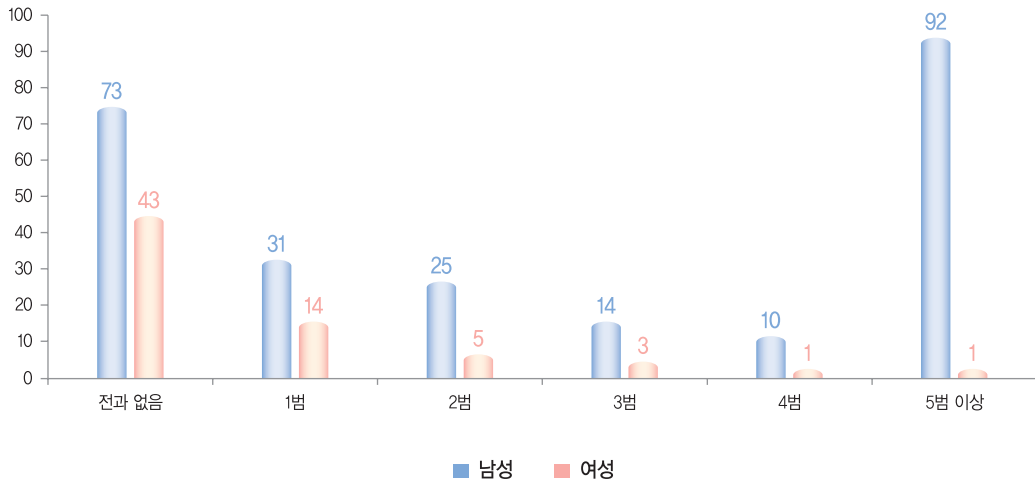
- 살인기수범죄자는 남성이 78.4%로 여성(21.6%)의 3.6배를 차지하며, 살인미수 등 범죄자도 남성이 90.1%로 여성(9.9%)의 9.1배를 차지함
- 남성 살인기수범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50대 25.3%, 30대 19.9%로 나타남. 남성 살인미수 등 범죄자는 40대 30.1%로 가장 많았고, 50대 24.7%, 30대 18.4% 순으로 나타남
- 여성 살인기수범죄자의 경우는 40대가 25.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19~30세) 24.4%, 30대 19.5%로 나타남. 여성 살인미수 등 범죄자는 20대(19~30세) 26.2%로 가장 많았고, 30대 23.0%, 50대 19.7% 순으로 나타남

<표 - 18> 살인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과횟수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73	24.6	43	52.4	116	30.6	122	22.0	30	49.2	152	24.7
1범	31	10.4	14	17.1	45	11.9	60	10.8	7	11.5	67	10.9
2범	25	8.4	5	6.1	30	7.9	46	8.3	4	6.6	50	8.1
3범	14	4.7	3	3.7	17	4.5	41	7.4	3	4.9	44	7.1
4범	10	3.4	1	1.2	11	2.9	30	5.4	0	0.0	30	4.9
5범 이상	92	31.0	1	1.2	93	24.5	204	36.8	4	6.6	208	33.8
미상	52	17.5	15	18.3	67	17.7	52	9.4	13	21.3	65	10.6
계	297	100.0	82	100.0	379	100.0	555	100.0	61	100.0	616	100.0

<그림 - 20>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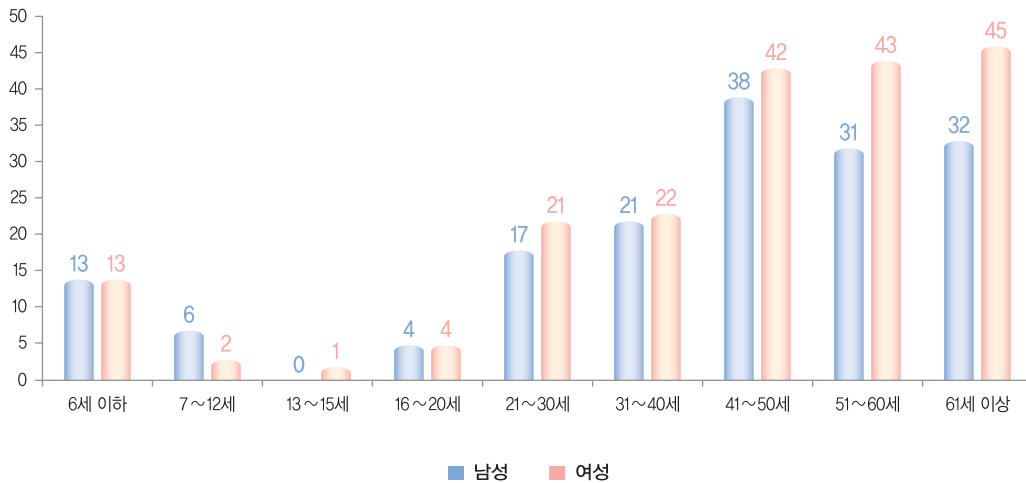
- 살인기수 범죄자의 전과횟수는 여성(52.4%)이 남성(24.6%)에 비해 전과 없음 비율이 2.1배 높은 반면, 5범 이상의 비율은 남성(31.0%)이 여성(1.2%)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전과횟수는 여성(49.2%)이 남성(22.0%)에 비해 전과 없음 비율이 2.1배 높은 반면, 5범 이상의 비율은 남성(36.8%)이 여성(6.6%)에 비해 5.6배 높게 나타남

<표 - 19> 살인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건, %

구분 연령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불상		계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13	8.0	13	6.7	0	0.0	26	7.3	1	0.3	3	1.6	0	0.0	4	0.7
7 - 12세	6	3.7	2	1.0	0	0.0	8	2.2	0	0.0	3	1.6	0	0.0	3	0.5
13 - 15세	0	0.0	1	0.5	0	0.0	1	0.3	2	0.6	0	0.0	0	0.0	2	0.4
16 - 20세	4	2.5	4	2.1	0	0.0	8	2.2	10	2.8	4	2.2	0	0.0	14	2.5
21 - 30세	17	10.5	21	10.9	0	0.0	38	10.7	41	11.5	12	6.5	0	0.0	53	9.5
31 - 40세	21	13.0	22	11.4	0	0.0	43	12.1	77	21.5	28	15.1	0	0.0	105	18.8
41 - 50세	38	23.5	42	21.8	0	0.0	80	22.5	88	24.6	64	34.4	0	0.0	152	27.2
51 - 60세	31	19.1	43	22.3	0	0.0	74	20.8	89	24.9	40	21.5	0	0.0	129	23.1
61세 이상	32	19.8	45	23.3	0	0.0	77	21.6	50	14.0	32	17.2	0	0.0	82	14.7
미상	0	0.0	0	0.0	1	100.0	1	0.3	0	0.0	0	0.0	14	100.0	14	2.5
계	162	100.0	193	100.0	1	100.0	356	100.0	358	100.0	186	100.0	14	100.0	558	100.0

<그림 - 21> 살인기수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대별 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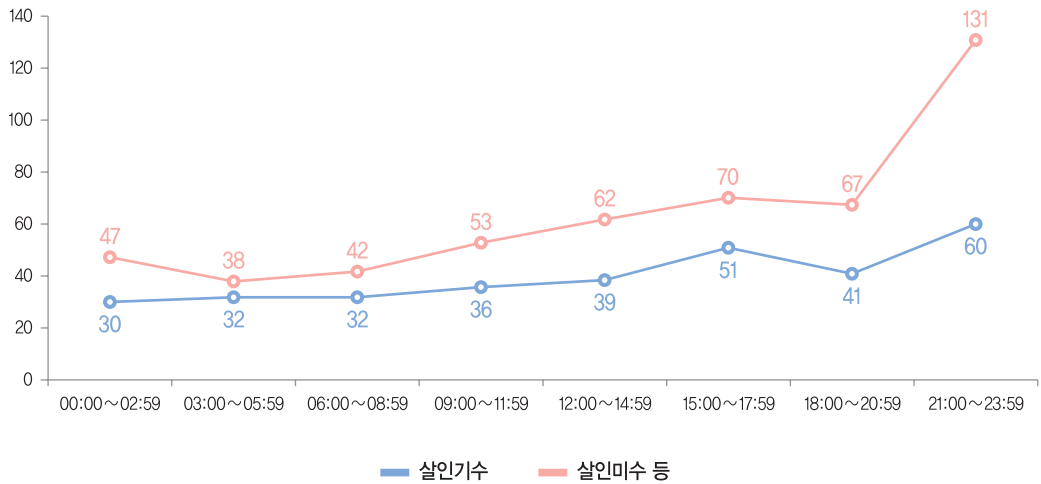
- 살인기수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45.5%, 여성이 54.2%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많았으나, 살인미수 등 범죄의 피해자는 남성이 64.2%, 여성이 33.3%로 남성이 1.9배 더 많음
- 살인기수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한 결과, 40대의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21.6%, 50대 20.8% 등의 비율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의 피해자는 40대 27.2%, 50대 23.1%, 30대 18.8%의 순으로 나타남

〈표 - 20〉 살인범죄 발생시간 분포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기수		미수 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30	8.4	47	8.4	77	8.4
03 : 00 ~ 05 : 59		32	9.0	38	6.8	70	7.7
06 : 00 ~ 08 : 59		32	9.0	42	7.5	74	8.1
09 : 00 ~ 11 : 59		36	10.1	53	9.5	89	9.7
12 : 00 ~ 14 : 59		39	11.0	62	11.1	101	11.1
15 : 00 ~ 17 : 59		51	14.3	70	12.5	121	13.2
18 : 00 ~ 20 : 59		41	11.5	67	12.0	108	11.8
21 : 00 ~ 23 : 59		60	16.9	131	23.5	191	20.9
미상		35	9.8	48	8.6	83	9.1
계		356	100.0	558	100.0	914	100.0

〈그림 - 22〉 살인범죄 발생시간 분포 (미상 제외, 단위: 건)



- 살인기수범죄는 21 : 00~23 : 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16.9%), 15 : 00~17 : 59 시간대 14.3%, 18 : 00~20 : 59 시간대 11.5%의 순으로 나타났음. 자정(00시)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18 : 00~20 : 59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였음
- 살인미수 등 범죄의 경우 21 : 00~23 : 59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23.5%), 15 : 00~17 : 59 시간대 12.5%, 18 : 00~20 : 59 시간대 12.0%의 순으로 나타났음. 03 : 00~05 : 59 시간대에 가장 낮은 발생 빈도를 보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1 : 00~23 : 59 시간대에 급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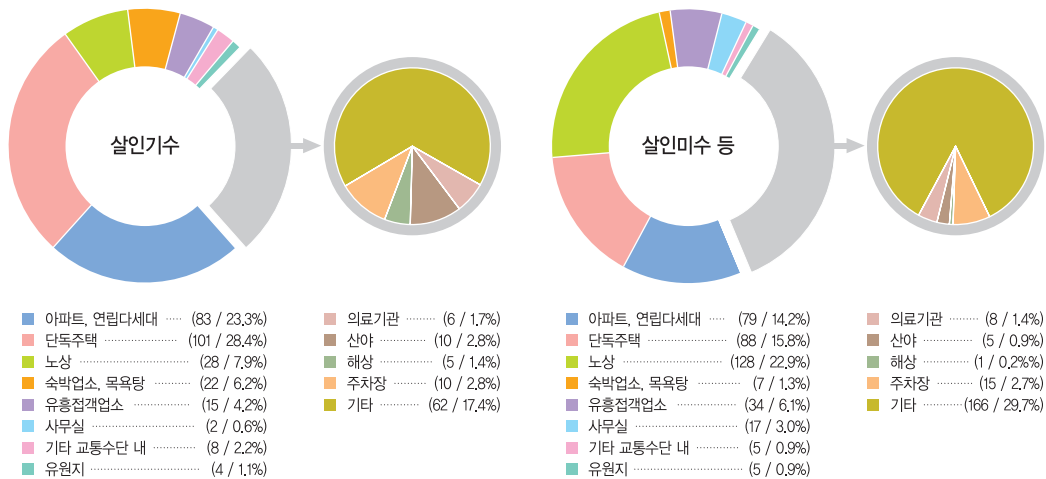
<표 - 21> 살인범죄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구분	기수		미수 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연립다세대		83	23.3	79	14.2	162	17.7
단독주택		101	28.4	88	15.8	189	20.7
노상		28	7.9	128	22.9	156	17.1
숙박업소·목욕탕		22	6.2	7	1.3	29	3.2
유흥접객업소		15	4.2	34	6.1	49	5.4
사무실		2	0.6	17	3.0	19	2.1
기타 교통수단 내		8	2.2	5	0.9	13	1.4
유원지		4	1.1	5	0.9	9	1.0
의료기관		6	1.7	8	1.4	14	1.5
산야		10	2.8	5	0.9	15	1.6
해상		5	1.4	1	0.2	6	0.7
주차장		10	2.8	15	2.7	25	2.7
기타*		62	17.4	166	29.7	228	24.9
계		356	100.0	558	100.0	914	100.0

※ 살인기수 및 미수 등에서 각각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분류함

<그림 - 23> 살인범죄 발생장소 (기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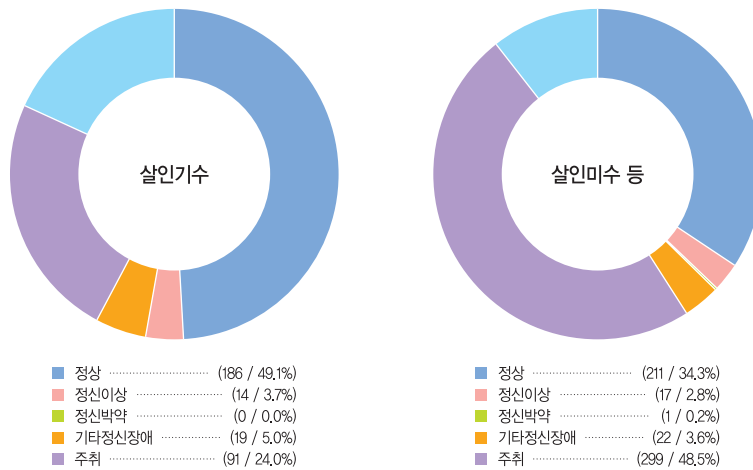
- 살인범죄의 발생장소를 확인한 결과, 전체 살인범죄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율이 20.7%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연립다세대 17.7%, 노상 17.1%의 순으로 나타남
- 살인기수범죄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율이 28.4%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연립다세대 23.3%, 노상 7.9%의 순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의 경우 노상의 비율이 22.9%로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 15.8%, 아파트·연립다세대 14.2%로 살인기수와 살인미수 등 범죄에서 발생장소 분포의 차이가 나타남

〈표 - 22〉 살인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명, %

범행시 정신상태	기수		미수 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정상	186	49.1	211	34.3	397	39.9
정신이상	14	3.7	17	2.8	31	3.1
정신박약	0	0.0	1	0.2	1	0.1
기타정신장애	19	5.0	22	3.6	41	4.1
주취	91	24.0	299	48.5	390	39.2
미상	69	18.2	66	10.7	135	13.6
계	379	100.0	616	100.0	995	100.0

〈그림 - 24〉 살인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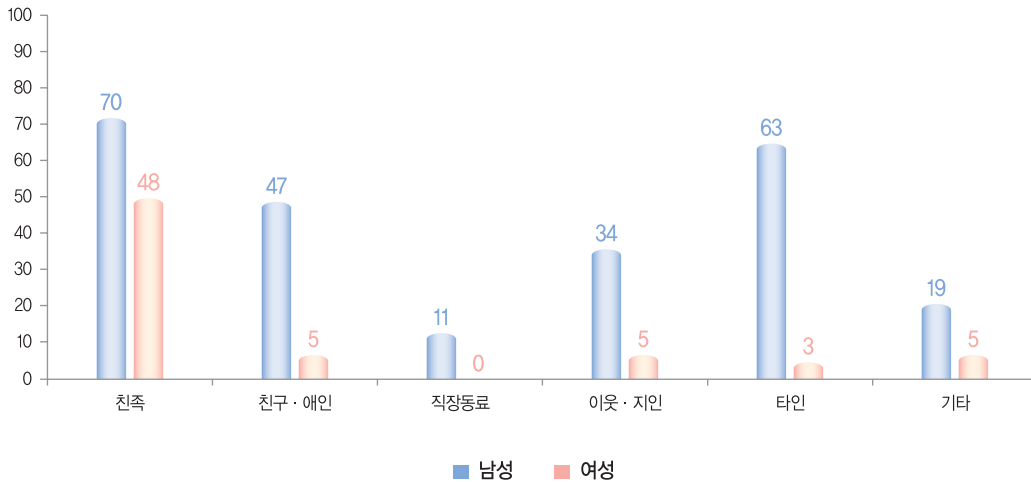
- 살인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는 정상(39.9%)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신이상이나 정신박약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던 범죄자는 살인기수 8.7%(정신이상 3.7%, 정신박약 0.0%, 기타정신장애 5.0%), 살인미수 등은 6.6%(정신이상 2.8%, 정신박약 0.2%, 기타정신장애 3.6%)로 나타남
-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살인기수범죄의 24.0%, 살인미수 등 범죄의 4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 23〉 살인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명, %

피해자와관계	구분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70	23.6	48	58.5	118	31.1	73	13.2	19	31.1	92	14.9
친구·애인	47	15.8	5	6.1	52	13.7	75	13.5	10	16.4	85	13.8
직장동료	11	3.7	0	0.0	11	2.9	37	6.7	0	0.0	37	6.0
이웃·지인	34	11.4	5	6.1	39	10.3	105	18.9	6	9.8	111	18.0
타인	63	21.2	3	3.7	66	17.4	165	29.7	11	18.0	176	28.6
기타	19	6.4	5	6.1	24	6.3	47	8.5	2	3.3	49	8.0
미상	53	17.8	16	19.5	69	18.2	53	9.5	13	21.3	66	10.7
계	297	100.0	82	100.0	379	100.0	555	100.0	61	100.0	616	100.0

〈그림 - 25〉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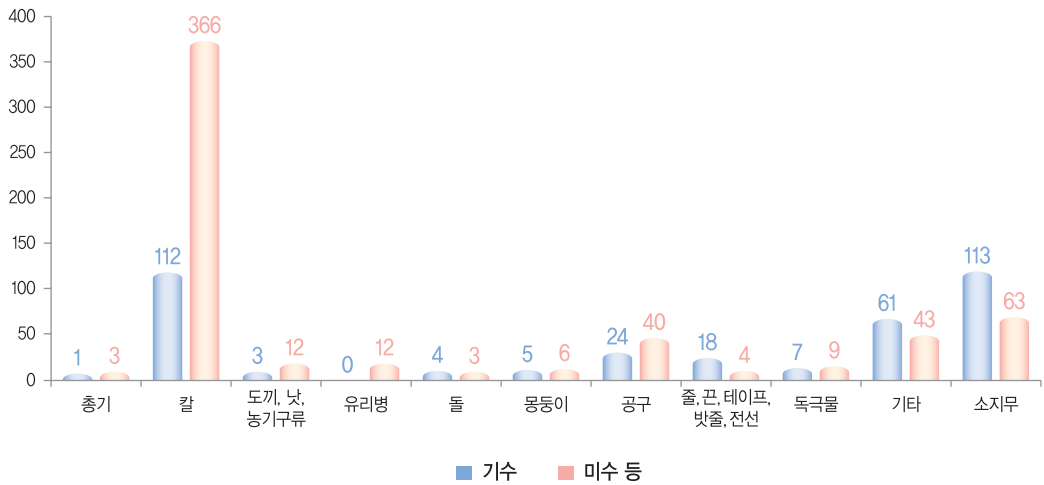
- 살인기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그 대상이 친족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1.1%), 타인 17.4%, 친구·애인 13.7%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살인미수 등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28.6%), 이웃·지인 18.0%, 친족 14.9%의 순서로 나타남
- 살인기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비율은 23.6%인데 비해, 여성은 58.5%로 여성이 남성보다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2.5배 많았음
- 살인미수 등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타인에 대한 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9.7%), 여성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31.1%)

〈표 - 24〉 살인범죄 범행도구

단위 : 건, %

범행도구	구분	기수		미수 등		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총기		1	0.3	3	0.5	4	0.4
칼		112	32.2	366	65.2	478	52.6
도끼·낫·농기구류		3	0.9	12	2.1	15	1.7
유리병		0	0.0	12	2.1	12	1.3
돌		4	1.1	3	0.5	7	0.8
몽둥이		5	1.4	6	1.1	11	1.2
공구		24	6.9	40	7.1	64	7
줄·끈·테이프·밧줄·전선		18	5.2	4	0.7	22	2.4
독극물		7	2.0	9	1.6	16	1.8
기타		61	17.5	43	7.7	104	11.4
소지무		113	32.5	63	11.2	176	19.4
계		348	100.0	561	100.0	909	100.0

〈그림 - 26〉 살인범죄 범행도구 (단위: 건)



- 살인기수범죄의 범행도구는 칼을 사용한 경우가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타를 제외하고는 공구를 사용한 경우가 6.9%, 줄·끈·테이프·밧줄·전선 5.2%로 나타남.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32.5%로 나타남
- 살인미수 등 범죄의 범행도구 역시 칼을 사용한 경우가 6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공구를 사용한 경우가 7.1%로 나타남.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11.2%로 기수범죄에 비해서 낮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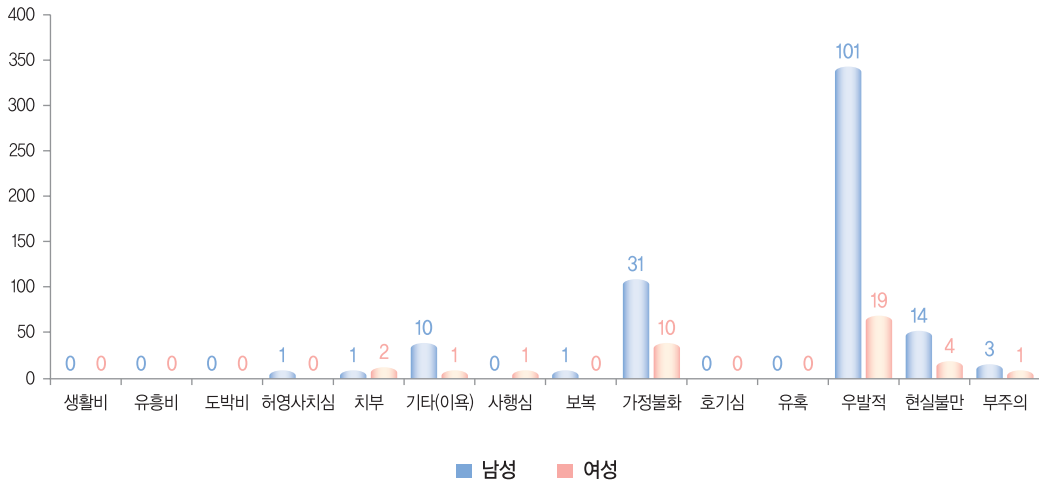


<표 - 25> 살인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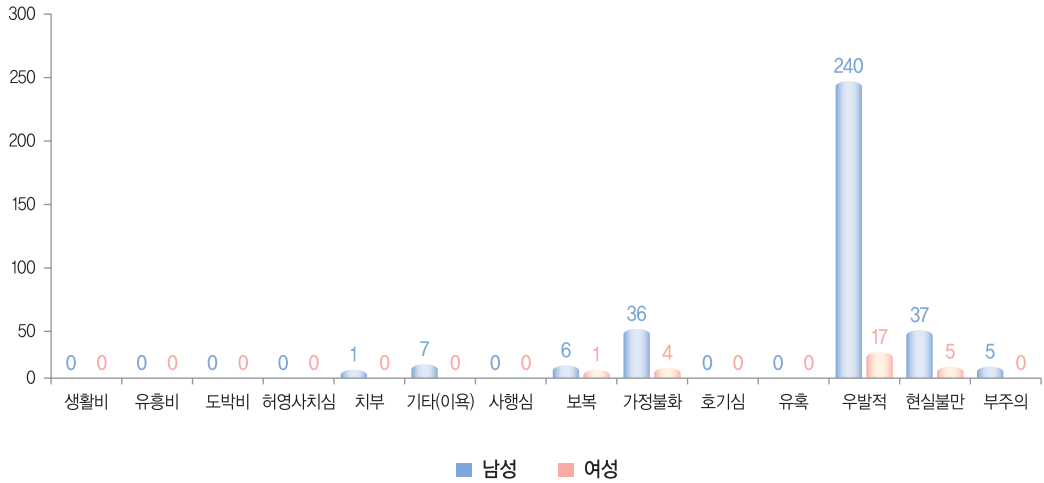
단위 : 명, %

범행동기	구분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유흥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도박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허영사치심	1	0.3	0	0.0	1	0.3	0	0.0	0	0.0	0	0.0
치부	1	0.3	2	2.4	3	0.8	1	0.2	0	0.0	1	0.2
기타(이욕)	10	3.4	1	1.2	11	2.9	7	1.3	0	0.0	7	1.1
사행심	0	0.0	1	1.2	1	0.3	0	0.0	0	0.0	0	0.0
보복	1	0.3	0	0.0	1	0.3	6	1.1	1	1.6	7	1.1
가정불화	31	10.4	10	12.2	41	10.8	36	6.5	4	6.6	40	6.5
호기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유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우발적	101	34.0	19	23.2	120	31.7	240	43.2	17	27.9	257	41.7
현실불만	14	4.7	4	4.9	18	4.7	37	6.7	5	8.2	42	6.8
부주의	3	1.0	1	1.2	4	1.1	5	0.9	0	0.0	5	0.8
기타	82	27.6	28	34.1	110	29.0	169	30.5	20	32.8	189	30.7
미상	53	17.8	16	19.5	69	18.2	54	9.7	14	23.0	68	11.0
계	297	100.0	82	100.0	379	100.0	555	100.0	61	100.0	616	100.0

<그림 - 27>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명)



〈그림 - 28〉 살인미수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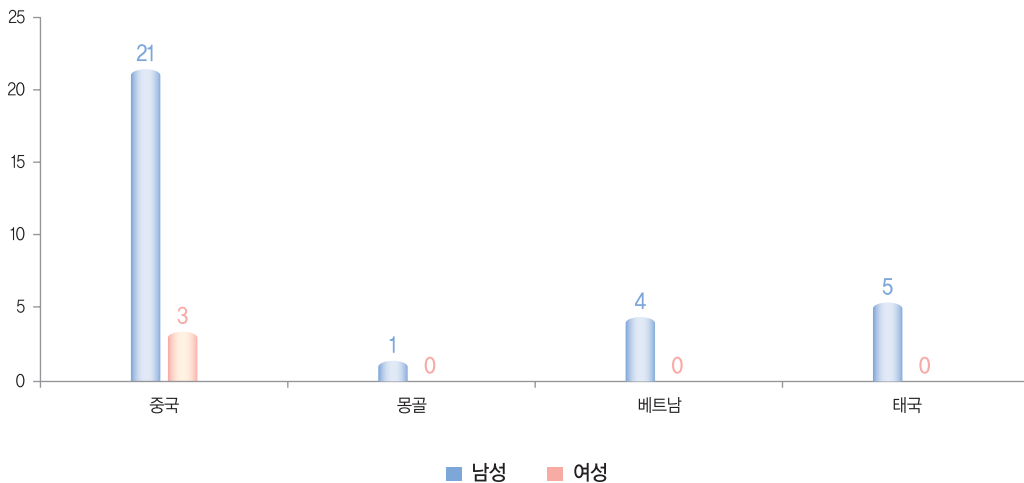
- 살인기수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가정불화 10.8%, 현실불만 4.7% 순으로 나타남(기타 29.0%, 미상 18.2%). 반면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41.7%로 가장 높고, 현실불만 6.8%를 차지함(기타 30.7%, 미상 11.0%)
- 살인기수범죄자 범행동기의 성별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성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34.0%, 가정불화 10.4%, 현실불만 4.7%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23.2%, 가정불화 12.2%, 현실불만 4.9% 순으로 나타나서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범행동기의 순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범행동기 비율의 경우는 남녀 모두 우발적, 현실불만, 가정불화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남성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여성보다 1.5배 높게 나타났음

<표 - 26> 살인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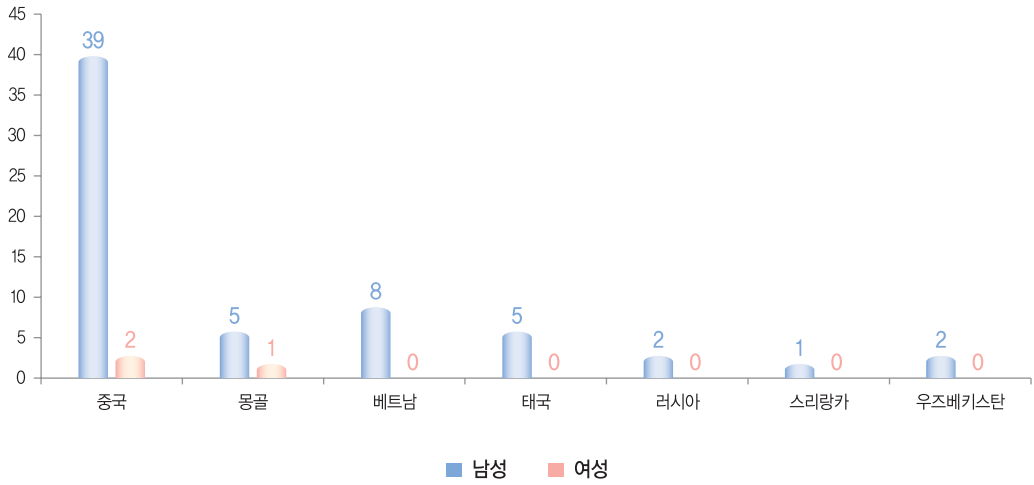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국적	기수						미수 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266	89.6	79	96.3	345	91.0	484	87.2	58	95.1	542	88.0
미국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국	21	7.1	3	3.7	24	6.3	39	7.0	2	3.3	41	6.7
일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몽골	1	0.3	0	0.0	1	0.3	5	0.9	1	1.6	6	1.0
베트남	4	1.3	0	0.0	4	1.1	8	1.4	0	0.0	8	1.3
태국	5	1.7	0	0.0	5	1.3	5	0.9	0	0.0	5	0.8
대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러시아	0	0.0	0	0.0	0	0.0	2	0.4	0	0.0	2	0.3
방글라데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스리랑카	0	0.0	0	0.0	0	0.0	1	0.2	0	0.0	1	0.2
우즈베키스탄	0	0.0	0	0.0	0	0.0	2	0.4	0	0.0	2	0.3
인도네시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캐나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키르기스스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필리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파키스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9	1.6	0	0.0	9	1.5
계	297	100.0	82	100.0	379	100.0	555	100.0	61	100.0	616	100.0

<그림 - 29> 살인기수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한국·기타제외, 단위: 명)



<그림 - 30> 살인미수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한국·기타제외, 단위: 명)



- 살인미수 범죄자 중 한국인이 91.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외국인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경우에도 한국인이 88.0%, 외국인이 1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살인미수 범죄자의 경우, 외국인 중 중국 24명(6.3%), 태국 5명(1.3%), 베트남 4명(1.1%) 순으로 나타남. 살인미수 등 범죄자의 경우 외국인 중 중국 41명(6.7%), 베트남 8명(1.3%), 몽골 6명(1.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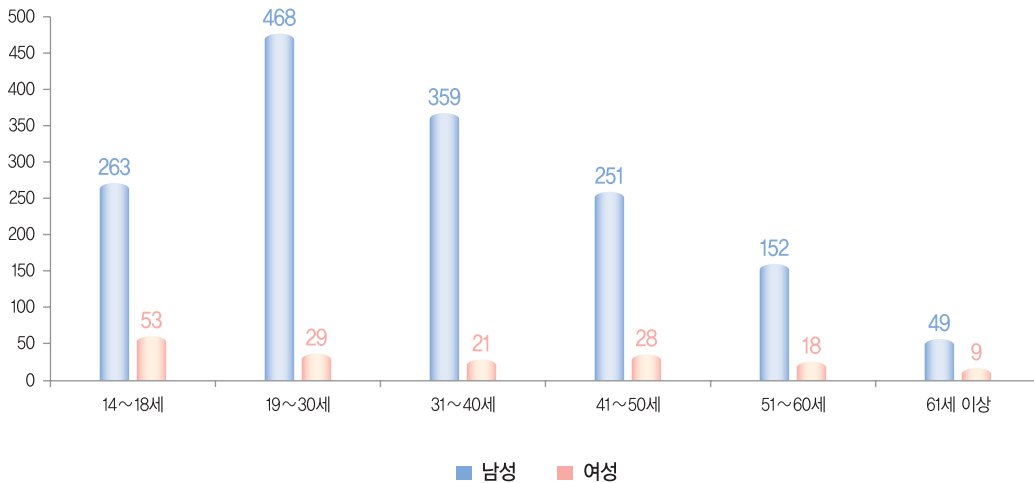
## 나. 강도

〈표 - 27〉 강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 - 18세		263	17.0	53	31.7	316	18.4
19 - 30세		468	30.2	29	17.4	497	29.0
31 - 40세		359	23.2	21	12.6	380	22.1
41 - 50세		251	16.2	28	16.8	279	16.3
51 - 60세		152	9.8	18	10.8	170	9.9
61세 이상		49	3.2	9	5.4	58	3.4
미상		7	0.5	9	5.4	16	0.9
계		1,549	100.0	167	100.0	1,716	100.0

〈그림 - 31〉 강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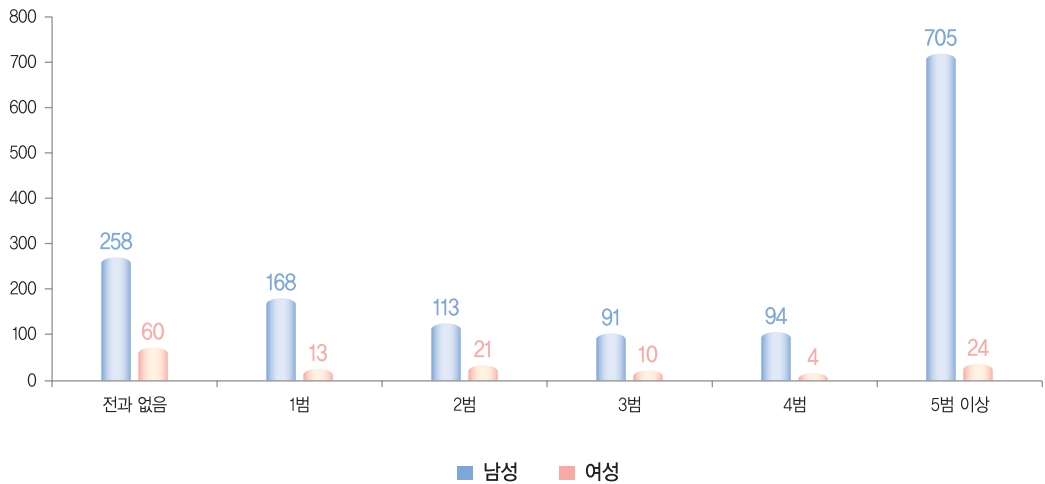
- 강도범죄자의 성별은 남성이 90.3%, 여성이 9.7%로 남성이 여성 보다 9.3배 높게 나타남
- 강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19~30세)가 2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 22.1%, 14~18세 18.4% 순으로 나타남. 20대 이후로 점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남성 강도범죄자의 경우 20대(19~30세)가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 23.2%, 14~18세 17.0% 순으로 나타남. 반면, 여성 강도범죄자의 경우 14~18세가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20대(19~30세) 17.4%, 40대 16.8%로 나타남

〈표 - 28〉 강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258	16.7	60	35.9	318	18.5
1범		168	10.8	13	7.8	181	10.5
2범		113	7.3	21	12.6	134	7.8
3범		91	5.9	10	6.0	101	5.9
4범		94	6.1	4	2.4	98	5.7
5범이상		705	45.5	24	14.4	729	42.5
미상		120	7.7	35	21.0	155	9.0
계		1,549	100.0	167	100.0	1,716	100.0

〈그림 - 32〉 강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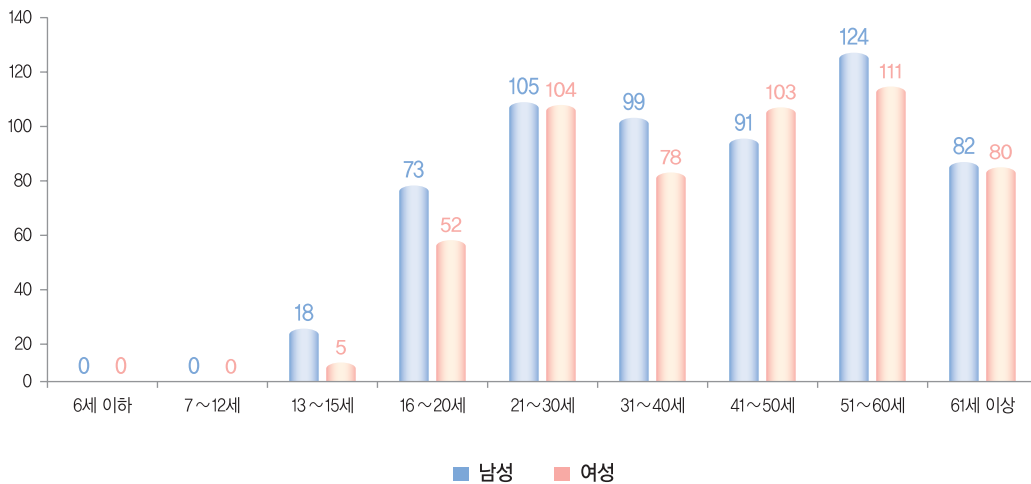
- 강도범죄자의 전과횟수를 성별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전과가 없는 경우는 남성(16.7%)에 비해 여성(35.9%)의 전과가 없는 범죄자 비율이 2.1배 높았음
- 5범 이상의 비율은 남성(45.5%)이 여성(14.4%)에 비해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 29> 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0	0.0	0	0.0	0	0.0	0	0.0
7 - 12세		0	0.0	0	0.0	0	0.0	0	0.0
13 - 15세		18	3.0	5	0.9	0	0.0	23	2.0
16 - 20세		73	12.3	52	9.7	0	0.0	125	10.9
21 - 30세		105	17.6	104	19.5	0	0.0	209	18.2
31 - 40세		99	16.6	78	14.6	0	0.0	177	15.4
41 - 50세		91	15.3	103	19.3	0	0.0	194	16.9
51 - 60세		124	20.8	111	20.8	0	0.0	235	20.5
61세 이상		82	13.8	80	15.0	0	0.0	162	14.1
미상		3	0.5	1	0.2	20	100.0	24	2.1
계		595	100.0	534	100.0	20	100.0	1,149	100.0

<그림 - 33> 강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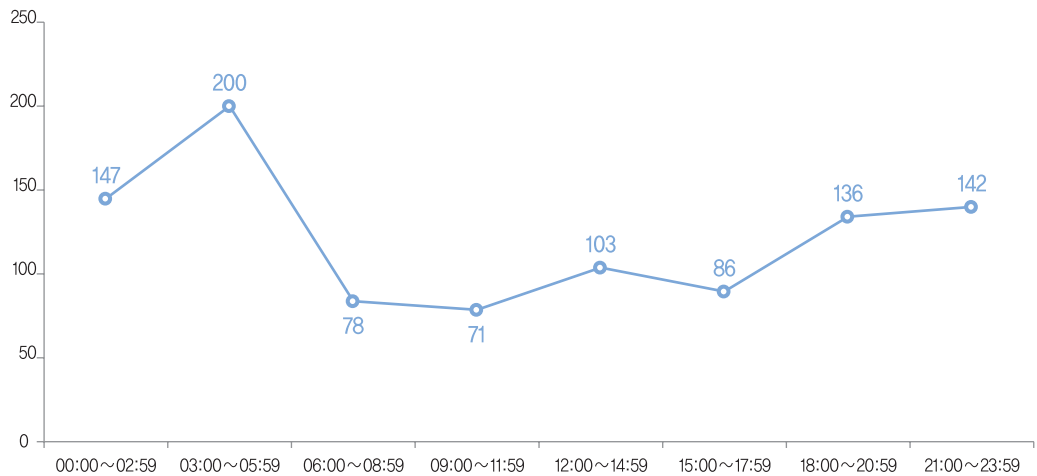
- 강도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51.8%, 여성이 46.5%의 비율을 차지하여(강도범죄 피해자 중 성별 불상자는 20명) 남녀 간 비율이 큰 차이는 없음
- 강도범죄 피해자의 연령대는 50대가 2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0대 18.2%, 40대 16.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분포에 있어서도 남녀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 30〉 강도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147	12.8
03 : 00 ~ 05 : 59		200	17.4
06 : 00 ~ 08 : 59		78	6.8
09 : 00 ~ 11 : 59		71	6.2
12 : 00 ~ 14 : 59		103	9.0
15 : 00 ~ 17 : 59		86	7.5
18 : 00 ~ 20 : 59		136	11.8
21 : 00 ~ 23 : 59		142	12.4
미상		186	16.2
계		1,149	100.0

〈그림 - 34〉 강도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단위: 건)



- 강도범죄는 새벽시간대인 03 : 00~05 : 59 시간대 17.4%로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고, 00 : 00~02 : 59 시간대 12.8%와 21 : 00~23 : 59 시간대 12.4% 순의 발생 비율을 보였음
- 강도범죄 발생건수는 06 : 00~08 : 59 시간대 이후로 15 : 00~17 : 59 시간대까지 10.0% 이하의 낮은 발생 비율을 유지하다가 18 : 00~20 : 59 시간대 이후로 03 : 00~05 : 59 시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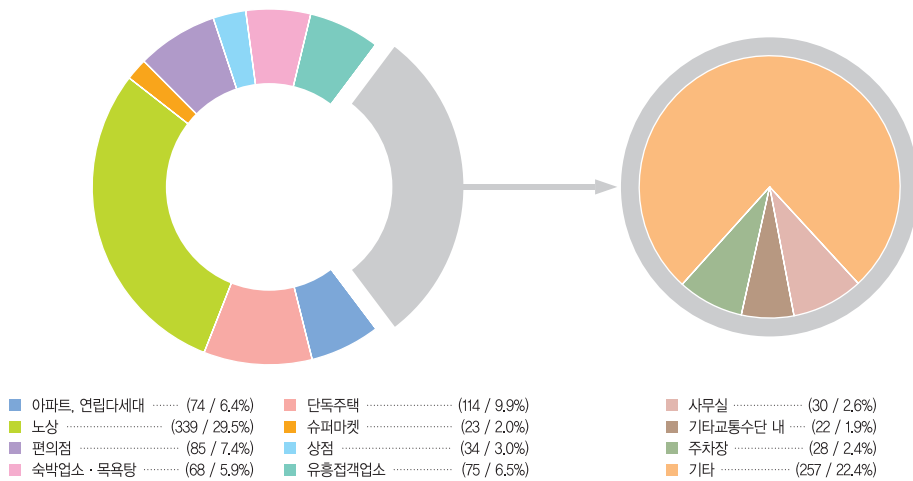
〈표 - 31〉 강도범죄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연립다세대		74	6.4
단독주택		114	9.9
노상		339	29.5
슈퍼마켓		23	2.0
편의점		85	7.4
상점		34	3.0
숙박업소·목욕탕		68	5.9
유형접객업소		75	6.5
사무실		30	2.6
기타 교통수단 내		22	1.9
주차장		28	2.4
기타*		257	22.4
계		1,149	100.0

※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재분류함

〈그림 - 35〉 강도범죄 발생장소 (미상 제외, 단위: 건)



- 강도범죄의 발생장소를 확인한 결과 노상의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 9.9%, 편의점 7.4%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유형접객업소(6.5%), 아파트·연립다세대(6.4%), 숙박업소·목욕탕(5.9%)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강도범죄가 발생함

〈표 - 32〉 강도범죄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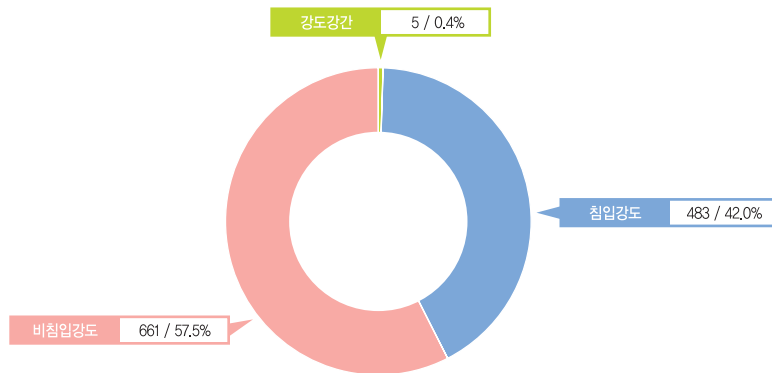
단위 : 건, %

강도범죄수법	발생건수	구성비
침입강도	483	42.0
비침입강도	661	57.5
강도강간	5	0.4
미상	0	0.0
계	1,149	100.0

\* 침입강도: 일반, 감금, 인질, 기타 침입강도

\*\* 비침입강도: 차내강도(운전자상대강도), 노상강도, 차량이용강도, 마취강도, 약취유인강도, 기타 비침입강도

〈그림 - 36〉 강도범죄 수법 (미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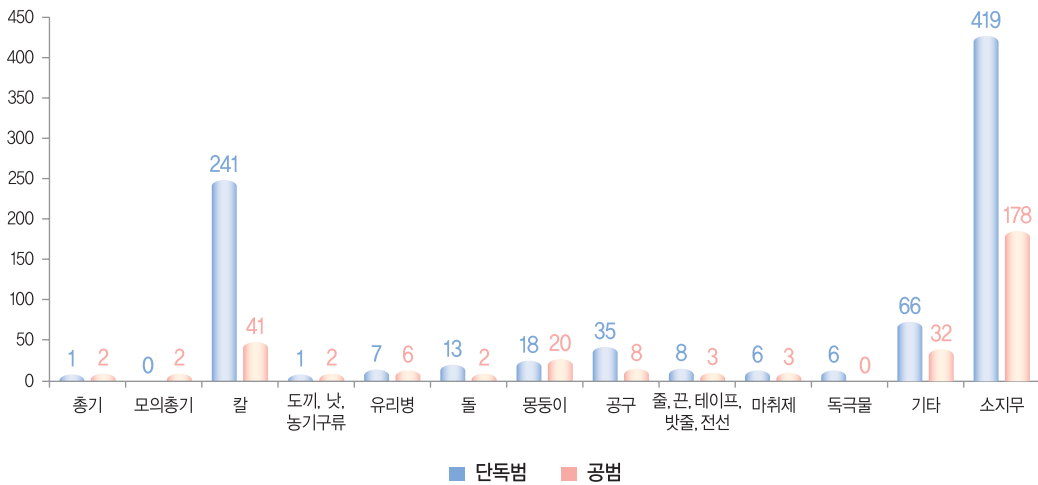
- 강도범죄 수법을 가장 상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발생비율을 확인한 결과, 비침입강도가 57.5%, 침입강도가 42.0%, 강도강간 0.4% 등으로 비침입강도가 침입강도에 비해서 발생 비율이 높았음

<표 - 33> 강도범죄 범행도구

단위 : 건, %

범행도구	구분	단독범		공범		불상		기타		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검거건수	구성비
총기		1	0.1	2	0.7	0	0.0	3	0.3	0	0.0
모의총기		0	0.0	2	0.7	0	0.0	2	0.2	0	0.0
칼		241	29.4	41	13.7	3	6.3	285	24.4	23	2.0
도끼·낫·농기구류		1	0.1	2	0.7	0	0.0	3	0.3	125	10.9
유리병		7	0.9	6	2.0	0	0.0	13	1.1	209	18.2
돌		13	1.6	2	0.7	1	2.1	16	1.4	177	15.4
몽둥이		18	2.2	20	6.7	3	6.3	41	3.5	194	16.9
공구		35	4.3	8	2.7	1	2.1	44	3.8	235	20.5
줄·끈·테이프·밧줄·전선		8	1.0	3	1.0	0	0.0	11	0.9	162	14.1
마취제		6	0.7	3	1.0	0	0.0	9	0.8	24	2.1
독극물		6	0.7	0	0.0	0	0.0	6	0.5	235	20.5
기타		66	8.0	32	10.7	5	10.4	103	8.8	162	14.1
미소지		419	51.0	178	59.5	35	72.9	632	54.1	24	2.1
계		821	100.0	299	100.0	48	100.0	1,168	100.0	1,149	100.0

<그림 - 37> 강도범죄 범행도구 (기타 공범유형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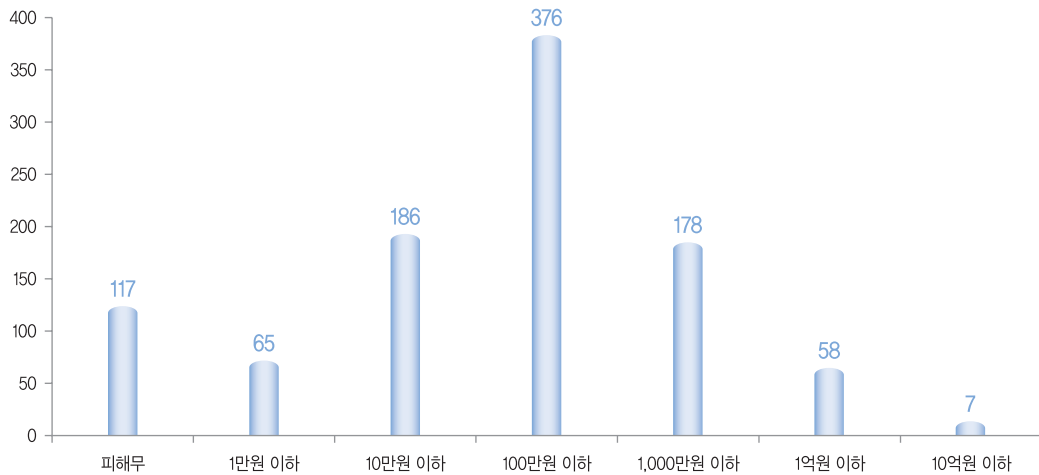
- 강도범죄시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54.1%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나타냄. 도구를 사용한 경우 중에서는 범행도구로 칼이 사용된 비율이 24.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공구(3.8%)와 몽둥이(3.5%)의 순서로 비율이 높았음
- 공범유무별 범행도구를 살펴보면, 단독범의 경우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가장 높고(51.0%), 다음으로 칼을 사용한 비율이 높음(29.4%). 공범이 있는 경우도 별다른 도구 없이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가장 높았고(59.5%), 다음으로 칼을 사용한 비율이 높음(13.7%)

<표 - 34> 강도범죄 피해금액

단위 : 건, %

피해금액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117	10.2
1만원 이하		65	5.7
10만원 이하		186	16.2
100만원 이하		376	32.7
1,000만원 이하		178	15.5
1억원 이하		58	5.0
10억원 이하		7	0.6
미상		162	14.1
계		1,149	100.0

<그림 - 38> 강도범죄 피해정도 (미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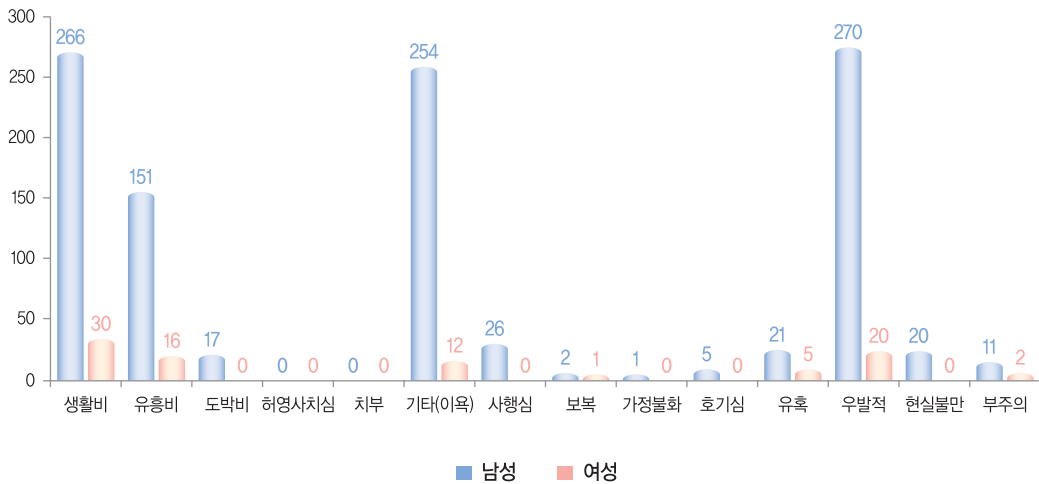
- 강도범죄로 인한 피해정도는 100만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32.7%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10만원 이하의 피해 16.2%, 1,000만원 이하의 피해 15.5% 순으로 나타남. 강도범죄로 보고되었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10.2%를 차지함

〈표 - 35〉 강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266	17.2	30	18.0	296	17.2
유혹비		151	9.7	16	9.6	167	9.7
도박비		17	1.1	0	0.0	17	1.0
허영사치심		0	0.0	0	0.0	0	0.0
치부		0	0.0	0	0.0	0	0.0
기타(이욕)		254	16.4	12	7.2	266	15.5
사행심		26	1.7	0	0.0	26	1.5
보복		2	0.1	1	0.6	3	0.2
가정불화		1	0.1	0	0.0	1	0.1
호기심		5	0.3	0	0.0	5	0.3
유혹		21	1.4	5	3.0	26	1.5
우발적		270	17.4	20	12.0	290	16.9
현실불만		20	1.3	0	0.0	20	1.2
부주의		11	0.7	2	1.2	13	0.8
기타		382	24.7	45	26.9	427	24.9
미상		123	7.9	36	21.6	159	9.3
계		1,549	100.0	167	100.0	1,716	100.0

〈그림 - 39〉 강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명)



- 강도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17.2%로 가장 높았고, 우발적인 경우 16.9%, 기타 이욕으로 인한 경우 15.5% 순으로 나타남
- 남성 강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확인한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17.4%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마련 17.2%, 기타(이욕)가 16.4% 순으로 나타남. 여성 강도범죄자의 경우는 생활비 때문인 경우가 18.0%, 우발적 12.0%, 유혹비 9.6% 순으로 나타남. 남녀의 범행동기에 있어서 남성은 우발적 동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한 동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 36〉 강도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국 적	구 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1,476	95.3	163	97.6	1,639	95.5
미국		3	0.2	0	0.0	3	0.2
중국		34	2.2	3	1.8	37	2.2
일본		0	0.0	0	0.0	0	0.0
몽골		5	0.3	0	0.0	5	0.3
베트남		8	0.5	0	0.0	8	0.5
태국		0	0.0	1	0.6	1	0.1
대만		2	0.1	0	0.0	2	0.1
러시아		5	0.3	0	0.0	5	0.3
방글라데시		0	0.0	0	0.0	0	0.0
스리랑카		0	0.0	0	0.0	0	0.0
우즈베키스탄		3	0.2	0	0.0	3	0.2
인도네시아		0	0.0	0	0.0	0	0.0
캐나다		0	0.0	0	0.0	0	0.0
키르기스스탄		0	0.0	0	0.0	0	0.0
필리핀		2	0.1	0	0.0	2	0.1
파키스탄		2	0.1	0	0.0	2	0.1
기타		9	0.6	0	0.0	9	0.5
계		1,549	100.0	167	100.0	1,716	100.0

〈그림 - 40〉 강도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기타 제외 제외, 단위: 명)



- 강도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인이 1,639명, 9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77명, 4.5%로 나타남. 외국인의 경우 중국이 37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명, 몽골과 러시아가 동일하게 5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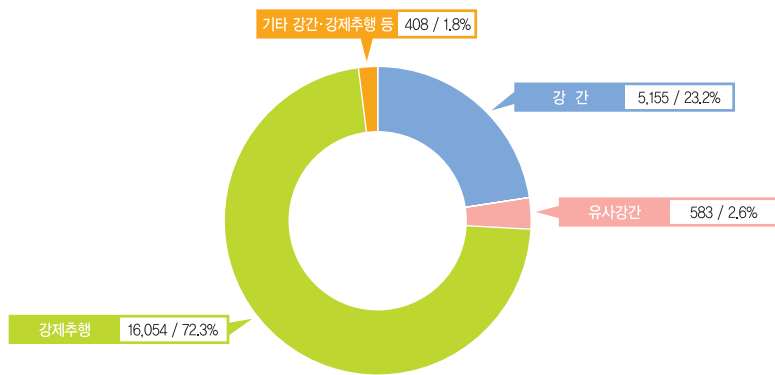
## 다. 강간·강제추행

〈표 - 37〉 강간·강제추행범죄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

죄 종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강간	5,155	23.2
	유사강간	583	2.6
	강제추행	16,054	72.3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408	1.8
	계	22,200	100.0

〈그림 - 41〉 강간·강제추행범죄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 강간·강제추행범죄는 유형별로 강간(유사강간 포함)과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강간과 강제추행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음
- 전체 강간·강제추행범죄 중 강제추행이 7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강간이 23.2%, 유사강간이나 기타 강간·강제추행범죄는 각각 2.6%와 1.8%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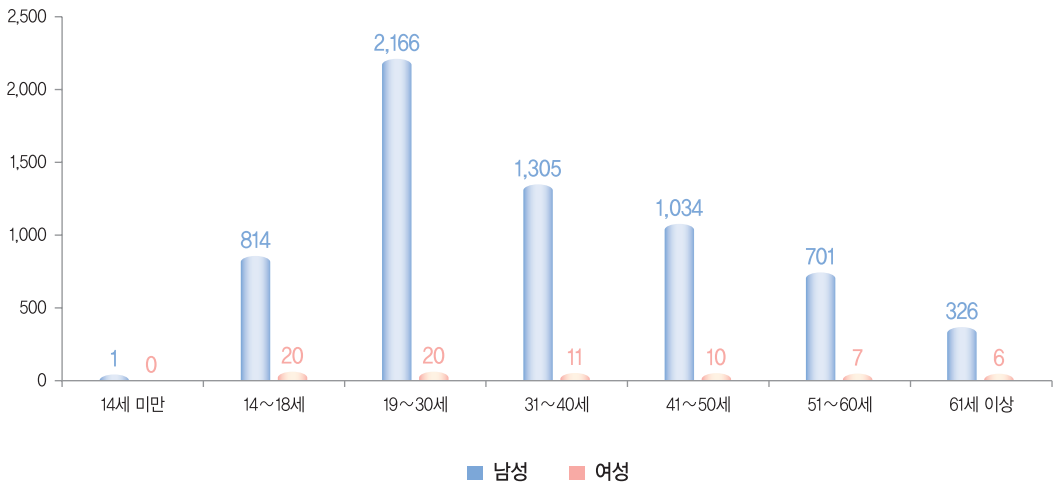
## 1) 강간(유사강간포함)

〈표 - 38〉 강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세 미만		1	0.0	0	0.0	1	0.0
14 - 18세		814	12.8	20	27.0	834	13.0
19 - 30세		2,166	34.1	20	27.0	2,186	34.0
31 - 40세		1,305	20.5	11	14.9	1,316	20.5
41 - 50세		1,034	16.3	10	13.5	1,044	16.2
51 - 60세		701	11.0	7	9.5	708	11.0
61세 이상		326	5.1	6	8.1	332	5.2
미상		6	0.1	0	0.0	6	0.1
계		6,353	100.0	74	100.0	6,427	100.0

〈그림 - 42〉 강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 강간범죄자는 남성이 98.8%, 여성의 비율은 1.2%를 차지함. 남성이 여성의 82.3배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 강간범죄자의 연령분포를 확인한 결과, 20대(19-30세) 범죄자의 비율이 34.0%로 가장 높았고, 30대 20.5%, 40대 16.2%, 14-18세 13.0%, 50대 11.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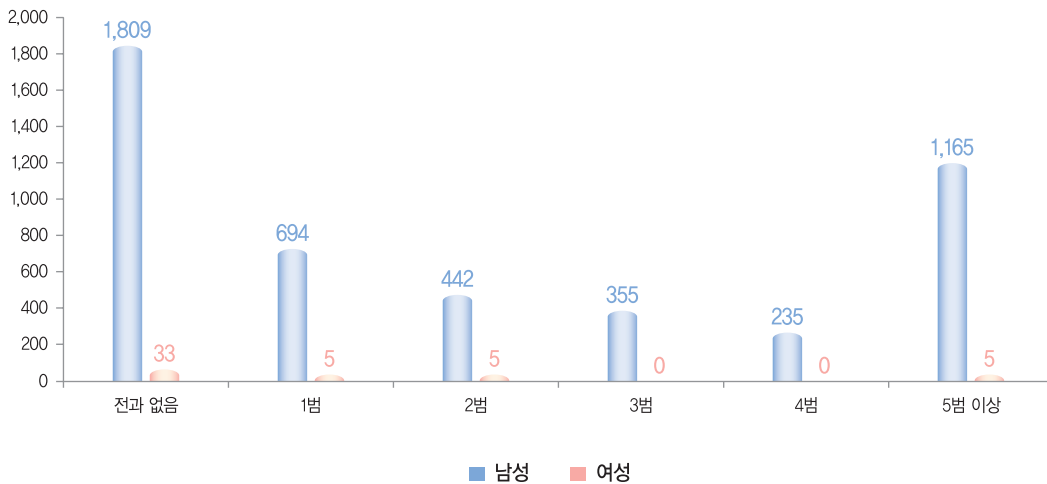


<표 - 39> 강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1,809	28.5	33	44.6	1,842	28.7
1범		694	10.9	5	6.8	699	10.9
2범		442	7.0	5	6.8	447	7.0
3범		355	5.6	0	0.0	355	5.5
4범		235	3.7	0	0.0	235	3.7
5범 이상		1,165	18.3	5	6.8	1,170	18.2
미상		1,653	26.0	26	35.1	1,679	26.1
계		6,353	100.0	74	100.0	6,427	100.0

<그림 - 43> 강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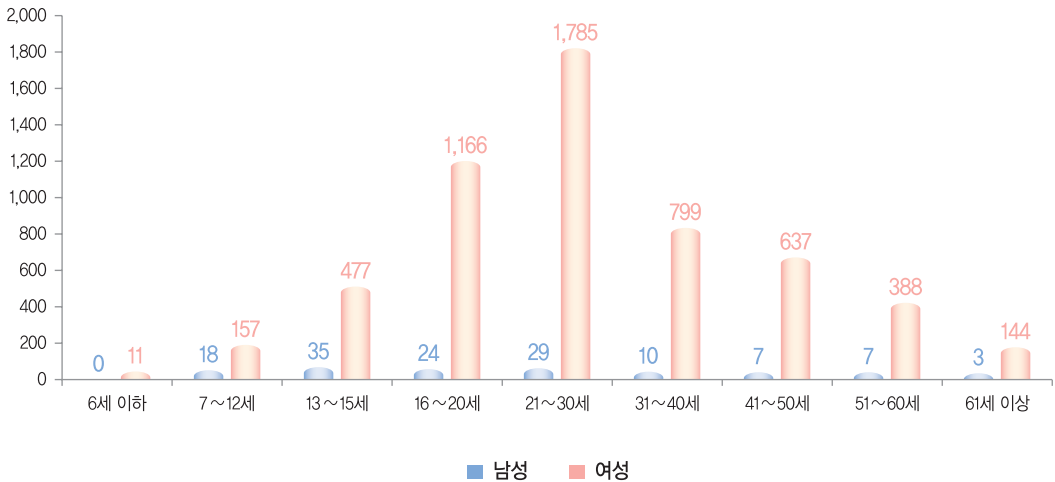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의 전과횟수는 남성의 경우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율이 28.5%, 전과자(1범 이상) 비율이 45.5%로 나타남. 미상인 경우가 26.0%인 점을 고려하면 전과자의 비율이 높음
- 전과가 없는 범죄자 비율은 남성(28.5%), 여성(44.6%)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1.6배 높았음
- 전과 5범 이상인 강간범죄자는 남성이 18.3%로 여성 6.8%보다 2.7배 높게 나타남

〈표 - 40〉 강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0	0.0	11	0.2	0	0.0	11	0.2
7 - 12세		18	13.5	157	2.8	0	0.0	175	3.0
13 - 15세		35	26.3	477	8.6	0	0.0	512	8.9
16 - 20세		24	18.0	1,166	20.9	1	2.9	1,191	20.8
21 - 30세		29	21.8	1,785	32.0	0	0.0	1,814	31.6
31 - 40세		10	7.5	799	14.3	0	0.0	809	14.1
41 - 50세		7	5.3	637	11.4	0	0.0	644	11.2
51 - 60세		7	5.3	388	7.0	0	0.0	395	6.9
61세 이상		3	2.3	144	2.6	0	0.0	147	2.6
미상		0	0.0	7	0.1	33	97.1	40	0.7
계		133	100.0	5,571	100.0	34	100.0	5,738	100.0

〈그림 - 44〉 강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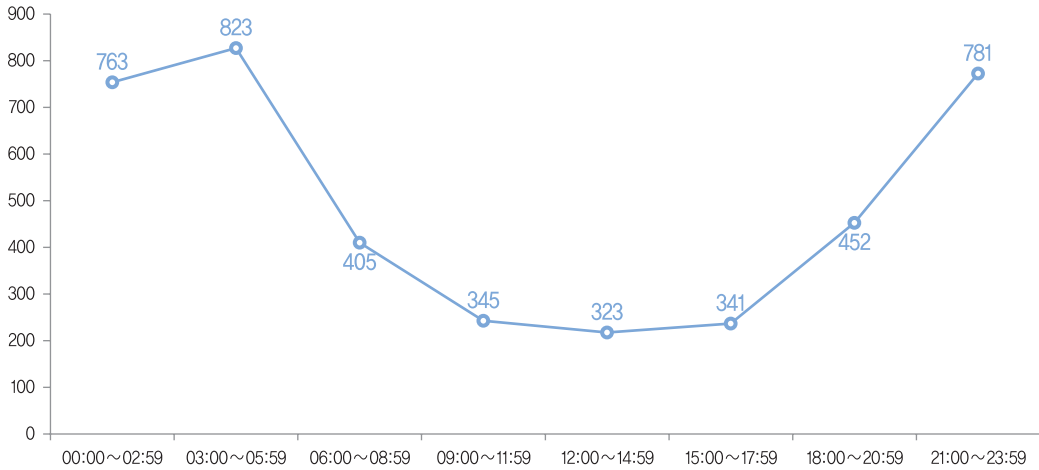
- 강간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97.1%)이며, 남성은 2.3%에 불과함(성별 불상자는 0.6%)
- 여성 피해자 중 20대가 3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6~20세가 20.9%로 나타남. 하지만 7~12세 집단의 일부와 13~15세 집단에 10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10대 피해자와 20대 피해자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임
- 남성 피해자(전체 133명)의 경우, 13~15세가 2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대 21.8%, 16~20세 18.0%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 피해자에 비해서 주요 피해 연령대가 낮은 특징을 보임

<표 - 41> 강간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763	13.3
03 : 00 ~ 05 : 59		823	14.3
06 : 00 ~ 08 : 59		405	7.1
09 : 00 ~ 11 : 59		345	6.0
12 : 00 ~ 14 : 59		323	5.6
15 : 00 ~ 17 : 59		341	5.9
18 : 00 ~ 20 : 59		452	7.9
21 : 00 ~ 23 : 59		781	13.6
미상		1,505	26.2
계		5,738	100.0

<그림 - 45> 강간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단위: 건)



- 강간범죄는 03 : 00~05 : 59 시간대 발생 비율이 14.3%로 가장 높았고, 21 : 00~23 : 59 시간대 13.6%, 00 : 00~02 : 59 시간대 13.3% 등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
- 06 : 00~08 : 59 시간대부터 18 : 00~20 : 59 시간대까지 낮은 비율로 발생하였고, 21 : 00~23 : 59 시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03 : 00~05 : 59 시간대까지 높은 발생 비율을 유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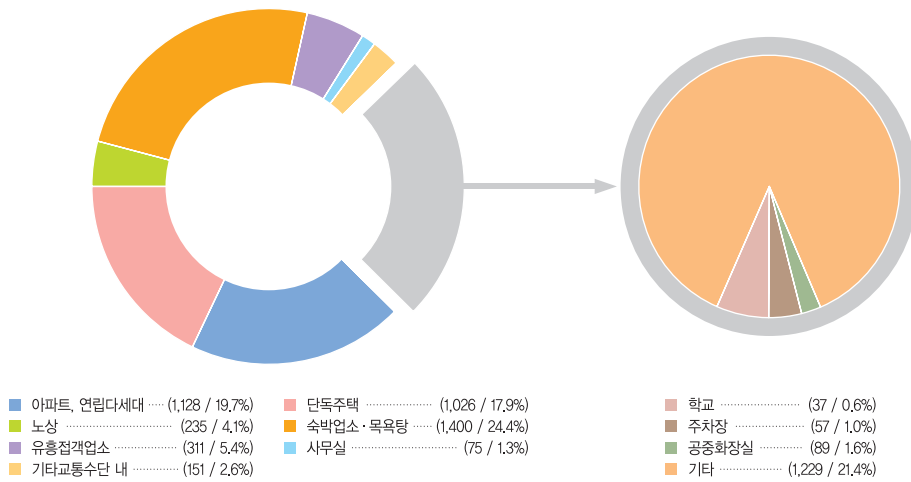
〈표 - 42〉 강간범죄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연립다세대		1,128	19.7
단독주택		1,026	17.9
노상		235	4.1
숙박업소·목욕탕		1,400	24.4
유형접객업소		311	5.4
사무실		75	1.3
기타교통수단내		151	2.6
학교		37	0.6
주차장		57	1.0
공중화장실		89	1.6
기타		1,229	21.4
계		5,738	100.0

※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재분류함

〈그림 - 46〉 강간범죄 발생장소 (미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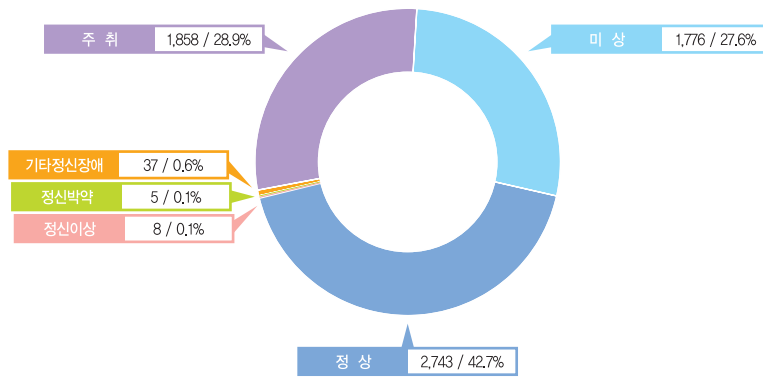
- 강간범죄의 발생장소는 숙박업소·목욕탕의 비율이 2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 19.7%, 단독주택 17.9% 등 거주공간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 외에도 유형접객업소(5.4%), 노상(4.1%) 등의 장소에서 강간범죄가 발생함

<표 - 43> 강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명, %

정신상태	구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2,743	42.7
정신이상		8	0.1
정신박약		5	0.1
기타정신장애		37	0.6
주취		1,858	28.9
미상		1,776	27.6
계		6,427	100.0

<그림 - 47> 강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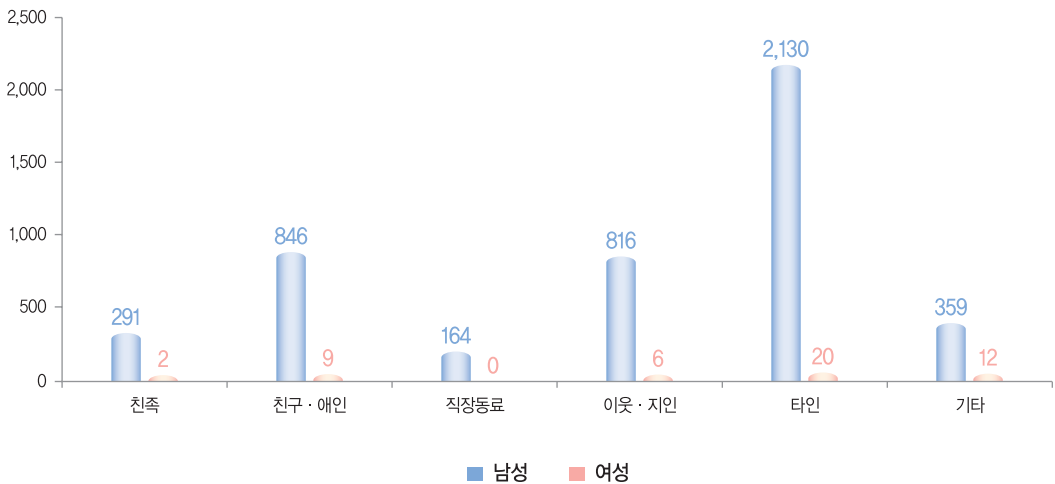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는 정상인 경우가 42.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0.8%(정신이상 0.1%, 정신박약 0.1%, 기타정신장애 0.6%)를 차지하였음(미상 27.6%)
- 주취상태에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28.9%에 이룸

〈표 - 44〉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 명, %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291	4.6	2	2.7	293	4.6
친구·애인		846	13.3	9	12.2	855	13.3
직장동료		164	2.6	0	0.0	164	2.6
이웃·지인		816	12.8	6	8.1	822	12.8
타인		2,130	33.5	20	27.0	2,150	33.5
기타		359	5.7	12	16.2	371	5.8
미상		1,747	27.5	25	33.8	1,772	27.6
계		6,353	100.0	74	100.0	6,427	100.0

〈그림 - 48〉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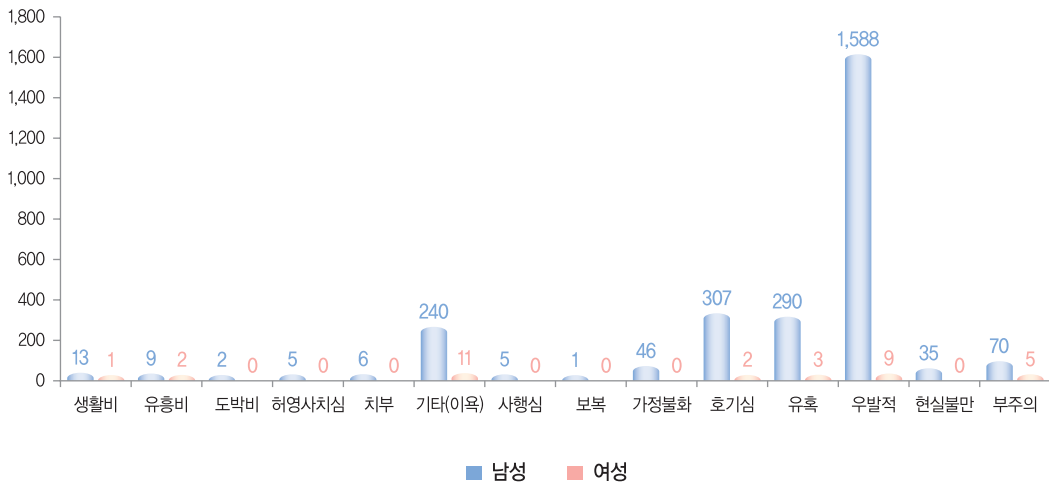
-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이 대상인 경우의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고, 친구·애인 13.3%, 이웃·지인 12.8%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 강간범죄자는 타인이 대상인 경우(33.5%)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친구·애인(13.3%)이웃·지인(12.8%) 순으로 나타남. 여성 강간범죄자 역시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이 대상인 경우(27.0%), 친구·애인(12.2%), 이웃·지인(8.1%) 순으로 나타남

〈표 - 45〉 강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13	0.2	1	1.4	14	0.2
유혹비		9	0.1	2	2.7	11	0.2
도박비		2	0.0	0	0.0	2	0.0
허영사치심		5	0.1	0	0.0	5	0.1
치부		6	0.1	0	0.0	6	0.1
기타(이욕)		240	3.8	11	14.9	251	3.9
사행심		5	0.1	0	0.0	5	0.1
보복		1	0.0	0	0.0	1	0.0
가정불화		46	0.7	0	0.0	46	0.7
호기심		307	4.8	2	2.7	309	4.8
유혹		290	4.6	3	4.1	293	4.6
우발적		1,588	25.0	9	12.2	1,597	24.8
현실불만		35	0.6	0	0.0	35	0.5
부주의		70	1.1	5	6.8	75	1.2
기타		1,972	31.0	16	21.6	1,988	30.9
미상		1,764	27.8	25	33.8	1,789	27.8
계		6,353	100.0	74	100.0	6,427	100.0

〈그림 - 49〉 강간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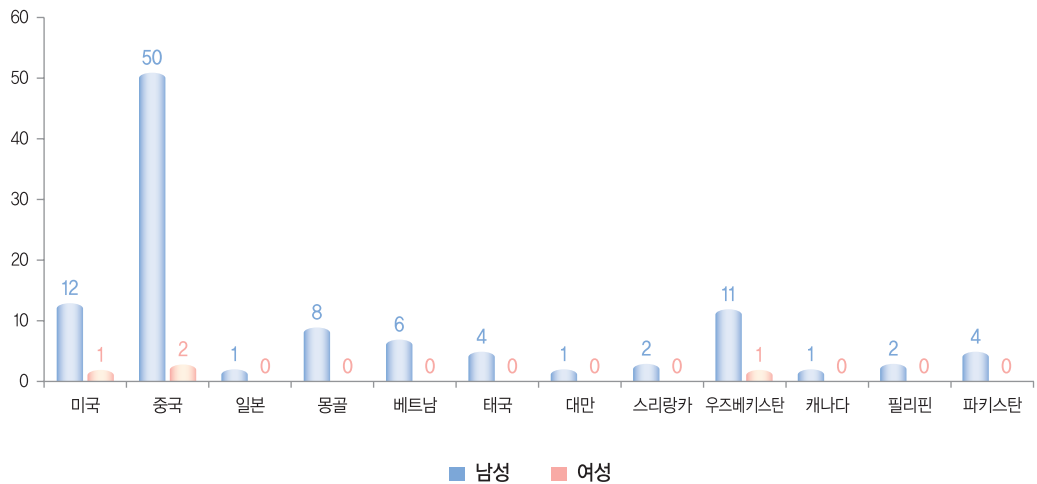
- 강간범죄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24.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호기심(4.8%), (피해자의) 유혹으로 인한 경우(4.6%)의 순으로 나타남
- 강간범죄자의 대부분을 남성이 차지하기 때문에 남성의 범행동기가 전체 강간사건의 범행동기 비율과 비슷한 반면, 여성 강간범죄자(전체 74명)의 경우, 기타 이욕으로 인한 경우가 14.9%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우발적인 경우가 12.2%,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6.8%로 나타나 남성의 범행동기와는 차이를 보임

〈표 - 46〉 강간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국적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6,224	98.0	70	94.6	6,294	97.9
미국		12	0.2	1	1.4	13	0.2
중국		50	0.8	2	2.7	52	0.8
일본		1	0.0	0	0.0	1	0.0
몽골		8	0.1	0	0.0	8	0.1
베트남		6	0.1	0	0.0	6	0.1
태국		4	0.1	0	0.0	4	0.1
대만		1	0.0	0	0.0	1	0.0
러시아		0	0.0	0	0.0	0	0.0
방글라데시		0	0.0	0	0.0	0	0.0
스리랑카		2	0.0	0	0.0	2	0.0
우즈베키스탄		11	0.2	1	1.4	12	0.2
캐나다		1	0.0	0	0.0	1	0.0
키르기스스탄		0	0.0	0	0.0	0	0.0
필리핀		2	0.0	0	0.0	2	0.0
파키스탄		4	0.1	0	0.0	4	0.1
기타		27	0.4	0	0.0	27	0.4
계		6,353	100.0	74	100.0	6,427	100.0

〈그림 - 50〉 강간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기타·제외, 단위: 명)



- 강간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인이 6,294명(97.9%) 외국인인 2.1%로 나타남. 외국인 중 중국인 강간범죄자가 52명(0.8%)으로 가장 많고, 미국 13명(0.2%), 우즈베키스탄 12(0.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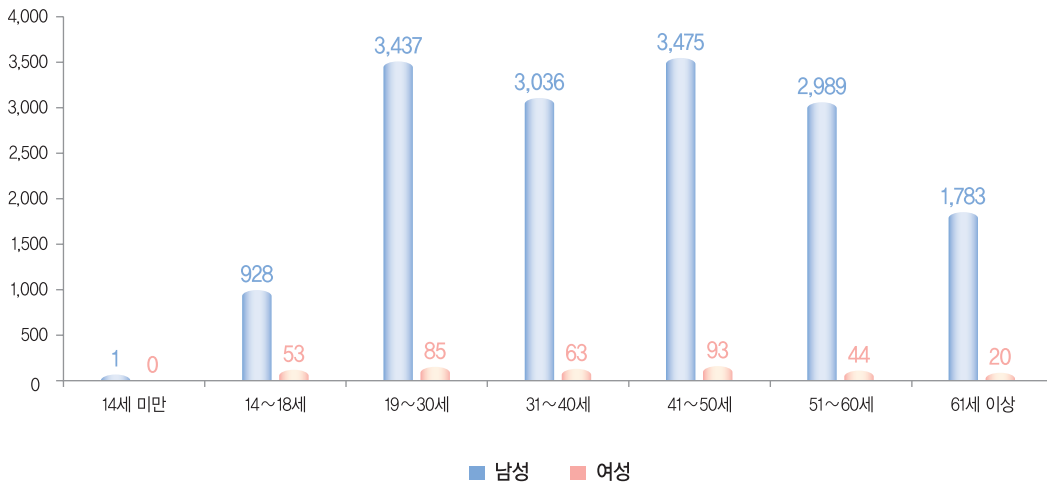
## 2) 강제추행

<표 - 47>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세 미만		1	0.0	0	0.0	1	0.0
14 - 18세		928	5.9	53	14.8	981	6.1
19 - 30세		3,437	22.0	85	23.7	3,522	22.0
31 - 40세		3,036	19.4	63	17.5	3,099	19.3
41 - 50세		3,475	22.2	93	25.9	3,568	22.3
51 - 60세		2,989	19.1	44	12.3	3,033	18.9
61세 이상		1,783	11.4	20	5.6	1,803	11.3
미상		8	0.1	1	0.3	9	0.1
계		15,657	100.0	359	100.0	16,016	100.0

<그림 - 51>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 강제추행 범죄자는 남성이 97.8%로 절대 다수이고, 여성이 2.2%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44.5배 높게 나타남
- 강제추행 범죄자의 연령대는 40대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19-30세) 22.0%, 30대 19.3% 순으로 나타남

<표 - 48>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5,466	34.9	147	40.9	5,613	35.0
1범		2,147	13.7	43	12.0	2,190	13.7
2범		1,319	8.4	16	4.5	1,335	8.3
3범		964	6.2	10	2.8	974	6.1
4범		667	4.3	13	3.6	680	4.2
5범 이상		3,006	19.2	12	3.3	3,018	18.8
미상		2,088	13.3	118	32.9	2,206	13.8
계		15,657	100.0	359	100.0	16,016	100.0

<그림 - 52>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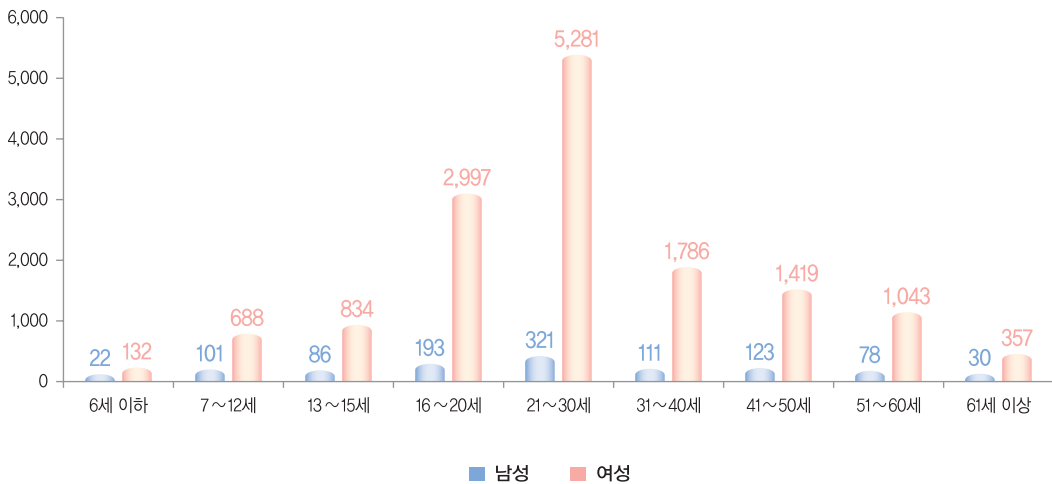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자의 성별 전과횟수는 남성의 경우 전과가 없는 범죄자 비율이 34.9%, 여성의 경우 전과가 없는 범죄자가 40.9%로 나타났음. 다만, 여성의 경우 전과 미상의 비율이 32.9%로, 남성의 13.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5범 이상 전과자 비율은 남성이 19.2%, 여성은 3.3%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8배 높음

<표 - 49>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22	2.1	132	0.9	0	0.0	154	1.0
7 - 12세		101	9.5	688	4.7	2	0.5	791	4.9
13 - 15세		86	8.1	834	5.7	1	0.3	921	5.7
16 - 20세		193	18.1	2,997	20.5	8	2.1	3,198	19.9
21 - 30세		321	30.1	5,281	36.2	9	2.3	5,611	35.0
31 - 40세		111	10.4	1,786	12.2	4	1.0	1,901	11.8
41 - 50세		123	11.5	1,419	9.7	1	0.3	1,543	9.6
51 - 60세		78	7.3	1,043	7.1	0	0.0	1,121	7.0
61세 이상		30	2.8	357	2.4	1	0.3	388	2.4
미상		0	0.0	66	0.5	360	93.3	426	2.7
계		1,065	100.0	14,603	100.0	386	100.0	16,054	100.0

<그림 - 53> 강제추행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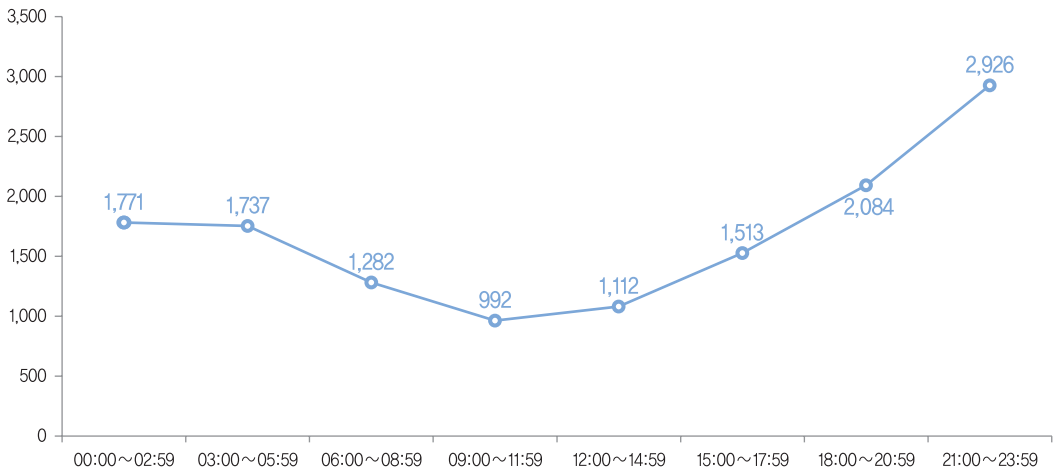
- 강제추행 피해자는 여성이 91.0%로 남성의 6.6%(성별 불상자는 2.4%)보다 1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강제추행 피해자는 20대가 35.0%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16~20세 19.9%, 30대 11.8%, 40대 9.6%의 순으로 나타남. 12세 이하(7~12세) 집단의 일부와 15세 이하(13~15세) 집단에 10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10대 피해자의 비율은 25~30%에 이릅니다

<표 - 50> 강제추행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1,771	11.0
03 : 00 ~ 05 : 59		1,737	10.8
06 : 00 ~ 08 : 59		1,282	8.0
09 : 00 ~ 11 : 59		992	6.2
12 : 00 ~ 14 : 59		1,112	6.9
15 : 00 ~ 17 : 59		1,513	9.4
18 : 00 ~ 20 : 59		2,084	13.0
21 : 00 ~ 23 : 59		2,926	18.2
미상		2,637	16.4
계		16,054	100.0

<그림 - 54> 강제추행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단위: 건)



- 강제추행범죄는 21 : 00~23 : 59 시간대에 18.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고, 18 : 00~20 : 59 시간대에 13.0%, 00 : 00~02 : 59 시간대 11.0%, 03 : 00~05 : 59 시간대 10.8% 순으로 나타남
- 강제추행범죄는 09 : 00~11 : 59 시간대에 가장 낮게 발생하였고, 21 : 00~23 : 59 시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자정(00 시)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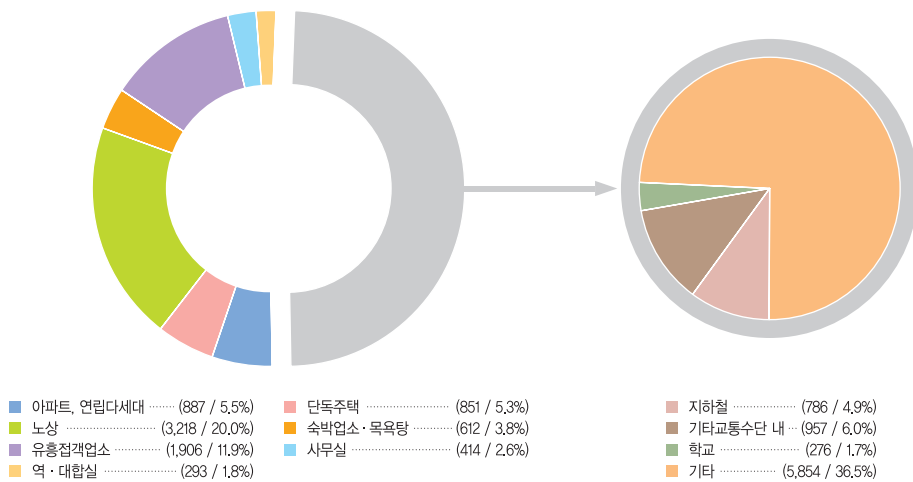
〈표 - 51〉 강제추행범죄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연립다세대		887	5.5
단독주택		851	5.3
노상		3,218	20.0
숙박업소·목욕탕		612	3.8
유형접객업소		1,906	11.9
사무실		414	2.6
역·대합실		293	1.8
지하철		786	4.9
기타교통수단내		957	6.0
학교		276	1.7
기타		5,854	36.5
계		16,054	100.0

※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재분류함

〈그림 - 55〉 강제추행범죄 발생장소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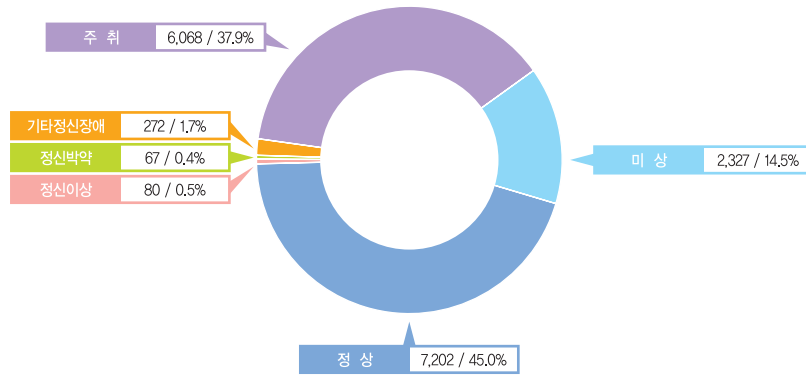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의 발생장소는 노상의 비율이 2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형접객업소 11.9%, 기타교통수단내 6.0%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아파트·연립다세대(5.5%), 단독주택(5.3%), 지하철(4.9%)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강제추행범죄가 발생함

〈표 - 52〉 강제추행범죄 발생장소

단위 : 건, %

정신상태	구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7,202	45.0
정신이상		80	0.5
정신박약		67	0.4
기타정신장애		272	1.7
주취		6,068	37.9
미상		2,327	14.5
계		16,016	100.0

〈그림 - 56〉 강제추행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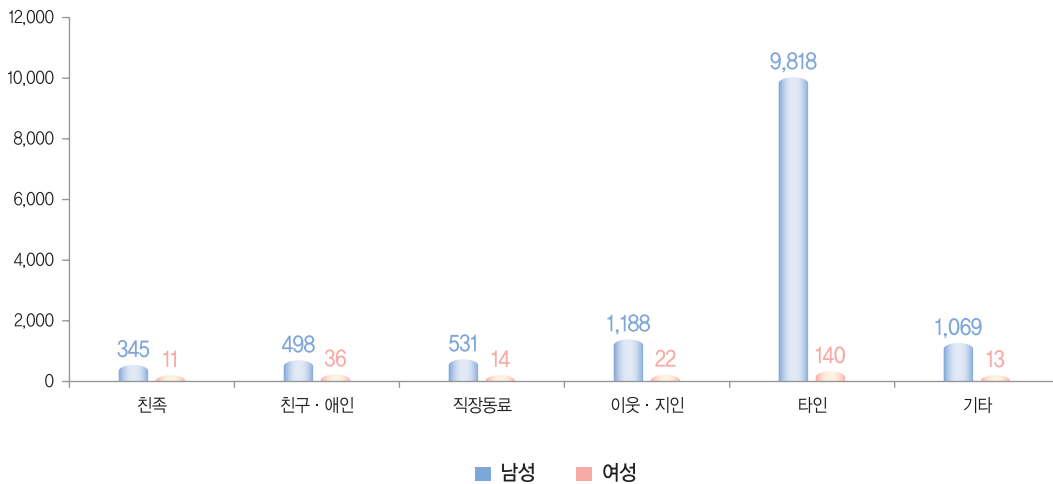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자의 정신상태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45.0%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의 비율은 2.6%(정신이상 0.5%, 정신박약 0.4%, 기타정신장애 1.7%)에 불과하였음
- 주취상태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3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 53>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 명, %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345	2.2	11	3.1	356	2.2
친구·애인		498	3.2	36	10.0	534	3.3
직장동료		531	3.4	14	3.9	545	3.4
이웃·지인		1,188	7.6	22	6.1	1,210	7.6
타인		9,818	62.7	140	39.0	9,958	62.2
기타		1,069	6.8	13	3.6	1,082	6.8
미상		2,208	14.1	123	34.3	2,331	14.6
계		15,657	100.0	359	100.0	16,016	100.0

<그림 - 57>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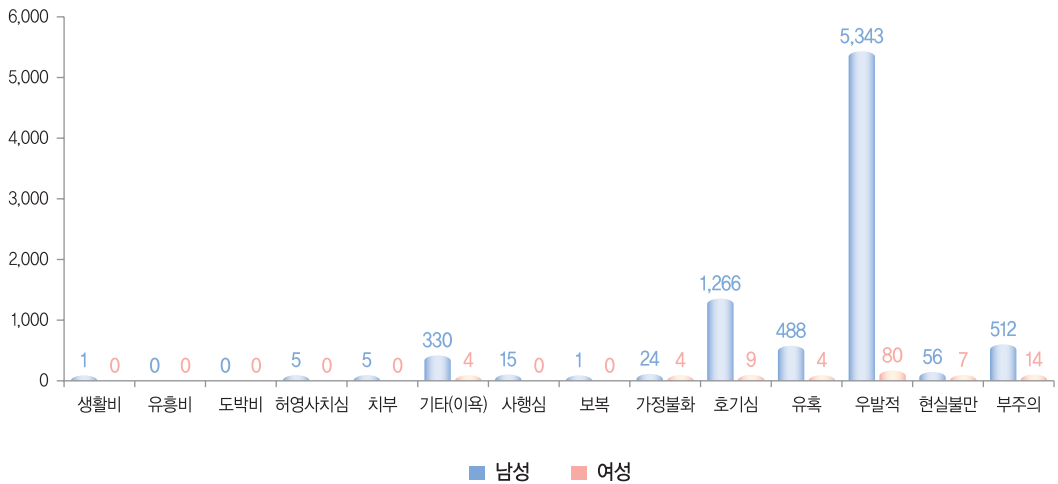
-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62.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웃·지인 7.6%, 직장동료 3.4% 순으로 나타남
- 강제추행범죄자 중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강제추행범죄자와 피해자와 관계는 전체 범죄자의 비율과 거의 유사함. 여성 강제추행범죄자(359명)도 타인이 대상인 경우의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고, 친구·애인이 10.0%, 이웃·지인이 6.1%였음

〈표 - 54〉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1	0.0	0	0.0	1	0.0
유혹비		0	0.0	0	0.0	0	0.0
도박비		0	0.0	0	0.0	0	0.0
허영사치심		5	0.0	0	0.0	5	0.0
치부		5	0.0	0	0.0	5	0.0
기타(이욕)		330	2.1	4	1.1	334	2.1
사행심		15	0.1	0	0.0	15	0.1
보복		1	0.0	0	0.0	1	0.0
가정불화		24	0.2	4	1.1	28	0.2
호기심		1,266	8.1	9	2.5	1,275	8.0
유혹		488	3.1	4	1.1	492	3.1
우발적		5,343	34.1	80	22.3	5,423	33.9
현실불만		56	0.4	7	1.9	63	0.4
부주의		512	3.3	14	3.9	526	3.3
기타		5,381	34.4	114	31.8	5,495	34.3
미상		2,230	14.2	123	34.3	2,353	14.7
계		15,657	100.0	359	100.0	16,016	100.0

〈그림 - 58〉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명)



- 강제추행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호기심 8.0%,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3.3%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전체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 강제추행범죄자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22.3%, 부주의 3.9%, 호기심 2.5%로 남성에 비해 비율이나 순위에서 차이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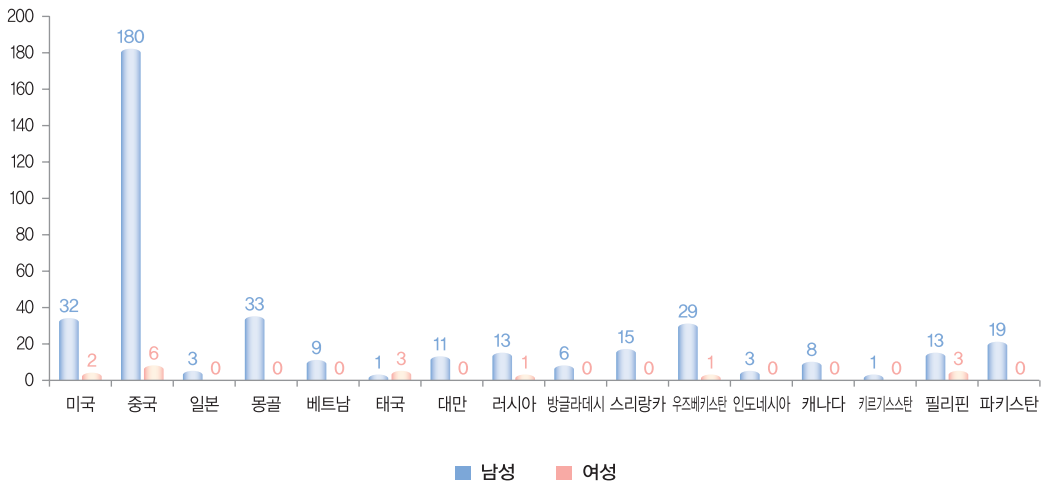


<표 - 55> 강제추행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국적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15,194	97.0	339	94.4	15,533	97.0
미국		32	0.2	2	0.6	34	0.2
중국		180	1.1	6	1.7	186	1.2
일본		3	0.0	0	0.0	3	0.0
몽골		33	0.2	0	0.0	33	0.2
베트남		9	0.1	0	0.0	9	0.1
태국		1	0.0	3	0.8	4	0.0
대만		11	0.1	0	0.0	11	0.1
러시아		13	0.1	1	0.3	14	0.1
방글라데시		6	0.0	0	0.0	6	0.0
스리랑카		15	0.1	0	0.0	15	0.1
우즈베키스탄		29	0.2	1	0.3	30	0.2
인도네시아		3	0.0	0	0.0	3	0.0
캐나다		8	0.1	0	0.0	8	0.0
키르기스스탄		1	0.0	0	0.0	1	0.0
필리핀		13	0.1	3	0.8	16	0.1
파키스탄		19	0.1	0	0.0	19	0.1
기타		87	0.6	4	1.1	91	0.6
계		15,657	100.0	359	100.0	16,016	100.0

<그림 - 59> 강제추행범죄자 국적 (한국 기타제외, 단위: 명)



- 강제추행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인 15,533명(97.0%)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외국인인 483명(3.0%)에 불과함.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이 186명(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4명(0.2%), 몽골 33명(0.2%), 우즈베키스탄 30명(0.2%)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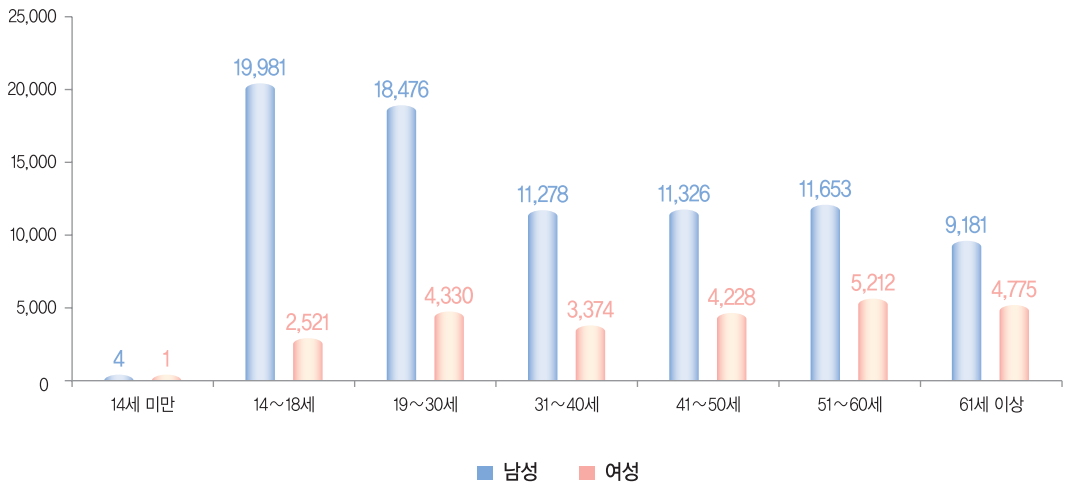
## 라. 절도

〈표 - 56〉 절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14세 미만		4	0.0	1	0.0	5	0.0
14 - 18세		19,981	24.4	2,521	10.3	22,502	21.1
19 - 30세		18,476	22.5	4,330	17.7	22,806	21.4
31 - 40세		11,278	13.8	3,374	13.8	14,652	13.8
41 - 50세		11,326	13.8	4,228	17.3	15,554	14.6
51 - 60세		11,653	14.2	5,212	21.3	16,865	15.8
61세 이상		9,181	11.2	4,775	19.5	13,956	13.1
미상		37	0.0	38	0.2	75	0.1
계		81,936	100.0	24,479	100.0	106,415	100.0

〈그림 - 60〉 절도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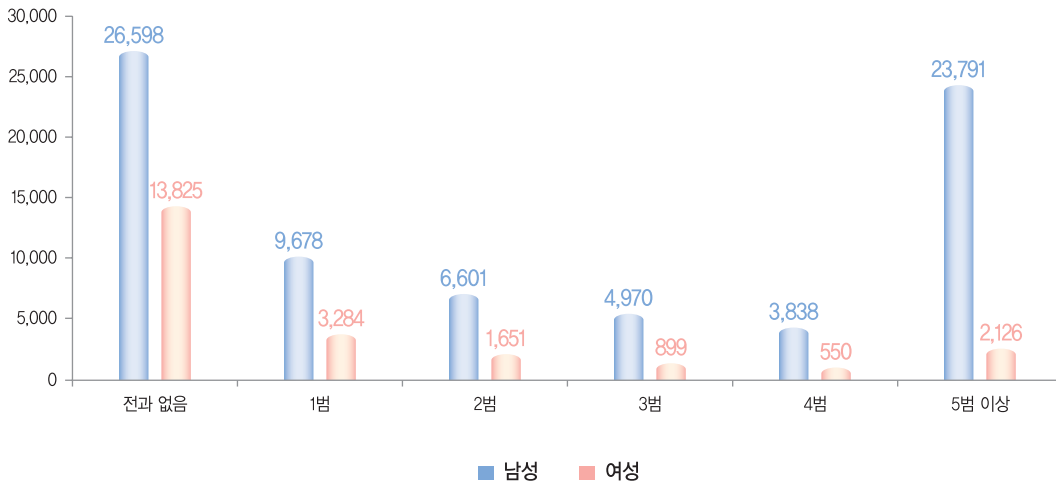
- 절도범죄자는 남성이 77.0%로 여성(23.0%)보다 3.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19~30세)가 21.4%로 가장 비율이 높고, 14~18세가 21.1%, 40대 14.6% 순으로 나타남
- 절도범죄자 중 남성은 14~18세 소년범 비율이 24.4%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50대 비율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 57> 절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26,598	32.5	13,825	56.5	40,423	38.0
1범		9,678	11.8	3,284	13.4	12,962	12.2
2범		6,601	8.1	1,651	6.7	8,252	7.8
3범		4,970	6.1	899	3.7	5,869	5.5
4범		3,838	4.7	550	2.2	4,388	4.1
5범 이상		23,791	29.0	2,126	8.7	25,917	24.4
미상		6,460	7.9	2,144	8.8	8,604	8.1
계		81,936	100.0	24,479	100.0	106,415	100.0

<그림 - 61> 절도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 절도범죄자의 전과횟수는 남성의 경우 전과자(1범 이상)의 비율이 59.7%로 전과가 없는 범 죄자 비율 32.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미상 7.9%), 여성은 전과가 없는 범 죄자가 56.5%로 과반수를 차지함
- 남성의 경우 전과 5범 이상 범 죄자 비율이 29.0%로, 여성 8.7%에 비해 3.3배 높게 나타남

<표 - 58> 절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4	0.0	1	0.0	1	0.0	6	0.0
7 - 12세		769	0.6	169	0.2	25	0.5	963	0.5
13 - 15세		2,846	2.2	522	0.8	18	0.3	3,386	1.7
16 - 20세		8,694	6.8	4,208	6.1	15	0.3	12,917	6.4
21 - 30세		24,178	18.8	12,056	17.4	43	0.8	36,277	17.9
31 - 40세		27,235	21.2	12,430	18.0	31	0.6	39,696	19.6
41 - 50세		27,953	21.7	16,187	23.4	40	0.8	44,180	21.8
51 - 60세		23,512	18.3	14,553	21.1	31	0.6	38,096	18.8
61세 이상		13,309	10.4	8,974	13.0	25	0.5	22,308	11.0
미상		86	0.1	26	0.0	5,096	95.7	5,208	2.6
계		128,586	100.0	69,126	100.0	5,325	100.0	203,037	100.0

<그림 - 62> 절도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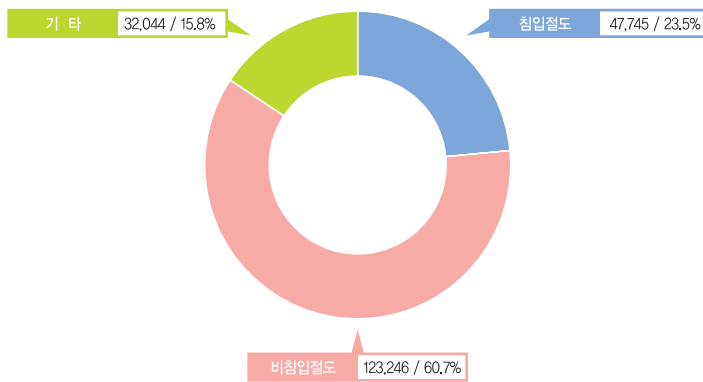
- 절도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63.3%, 여성이 34.0%로, 여성보다 남성의 절도피해 비율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성별 불상자는 2.6%)
- 절도범죄 피해자 연령대는 40대가 21.8%로 가장 많았고, 30대 19.6%, 50대 18.8% 순으로 나타남

<표 - 59> 절도범죄 수법

단위 : 건, %

범죄수법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침입절도	빈집 절도	11,908	5.9
	사무실 절도	2,113	1.0
	공장 절도	466	0.2
	상점 절도	10,362	5.1
	숙박업소 절도	798	0.4
	기타 침입절도	22,098	10.9
비침입절도	소매치기 절도	1,047	0.5
	날치기 절도	260	0.1
	기타 치기절도	5,192	2.6
	들치기 절도	19,628	9.7
	속임수 절도	2,149	1.1
	기타 비침입절도	94,970	46.8
기타	차량절도	3,501	1.7
	오토바이 절도	6,394	3.1
	자전거 절도	15,170	7.5
	축산물 절도	540	0.3
	기타 절도	6,439	3.2
미상		2	0.0
계		203,037	100.0

<그림 - 63> 절도범죄 수법 (미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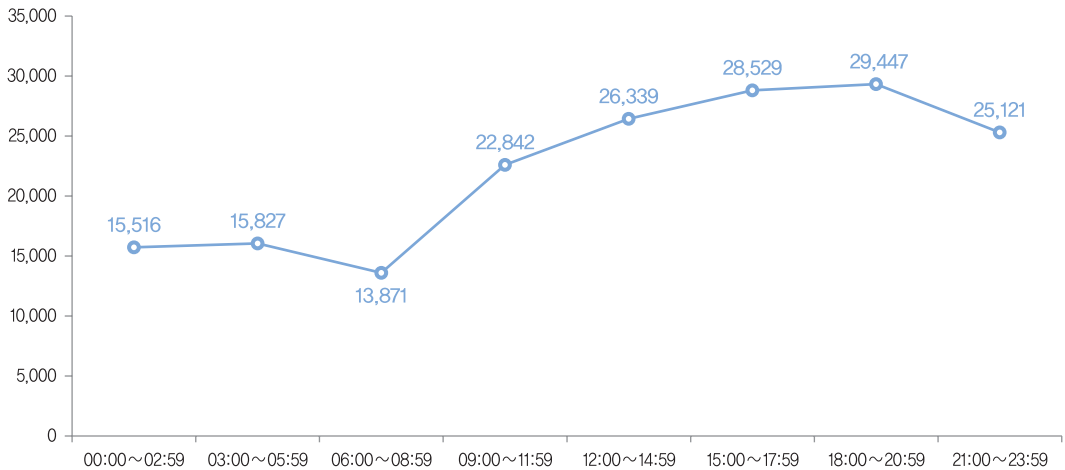
- 절도범죄 수법을 가장 상위 수준에서 구분해본 결과, 비침입절도(60.7%)가 침입절도(23.5%)나 기타 절도 유형(15.8%)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침입절도 중에서는 빈집절도(5.9%)나 상점절도(5.1%) 발생 비율이 높고, 비침입절도 중에서는 들치기절도(9.7%), 기타 절도 유형 중에는 자전거절도(7.5%)의 발생 비율이 높음

<표 - 60> 절도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 ~ 02 : 59		15,516	7.6
03 : 00 ~ 05 : 59		15,827	7.8
06 : 00 ~ 08 : 59		13,871	6.8
09 : 00 ~ 11 : 59		22,842	11.3
12 : 00 ~ 14 : 59		26,339	13.0
15 : 00 ~ 17 : 59		28,529	14.1
18 : 00 ~ 20 : 59		29,447	14.5
21 : 00 ~ 23 : 59		25,121	12.4
미상		25,545	12.6
계		203,037	100.0

<그림 - 64> 절도범죄 발생시간 (미상 제외, 단위: 건)



- 절도범죄는 18 : 00~20 : 59 시간대에 14.5%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5 : 00~17 : 59 시간대에 14.1%의 범죄가 발생함
- 절도의 경우 사람들의 활동이 적은 새벽시간과 06 : 00~08 : 59 시간대까지 발생이 적다가 09 : 00~11 : 59 시간대에 한차례 급격히 증가했다가 18 : 00~20 : 59 시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음. 다른 지표범죄들과 달리 21 : 00~23 : 59 시간대부터 발생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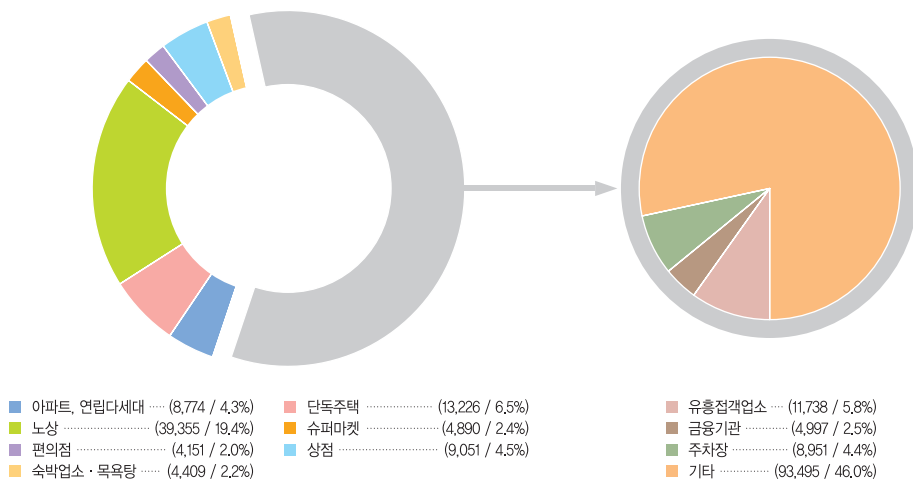
〈표 - 61〉 절도범죄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연립다세대		8,774	4.3
단독주택		13,226	6.5
노상		39,355	19.4
슈퍼마켓		4,890	2.4
편의점		4,151	2.0
상점		9,051	4.5
숙박업소·목욕탕		4,409	2.2
유흥접객업소		11,738	5.8
금융기관		4,997	2.5
주차장		8,951	4.4
기타		93,495	46.0
계		203,037	100.0

※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재분류함

〈그림 - 65〉 절도범죄 발생장소 (미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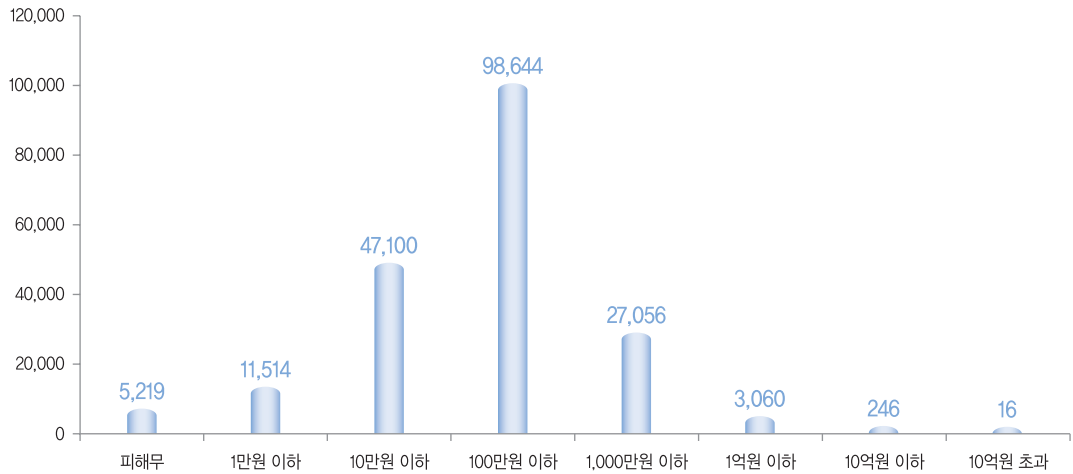
- 절도범죄의 발생장소는 노상의 비율이 19.4%로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 6.5%, 유흥접객업소 5.8%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상점(4.5%), 주차장(4.4%), 아파트·연립다세대(4.3%)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절도범죄가 발생함

<표 - 62> 절도범죄 피해금액

단위 : 건, %

피해금액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5,219	2.6
1만원 이하		11,514	5.7
10만원 이하		47,100	23.2
100만원 이하		98,644	48.6
1,000만원 이하		27,056	13.3
1억원 이하		3,060	1.5
10억원 이하		246	0.1
10억원 초과		16	0.0
미상		10,182	5.0
계		203,037	100.0

<그림 - 66> 절도범죄 피해금액 (미상 제외, 단위: 건)



- 절도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고, 10만원 이하 23.2%, 1,000만원 이하 13.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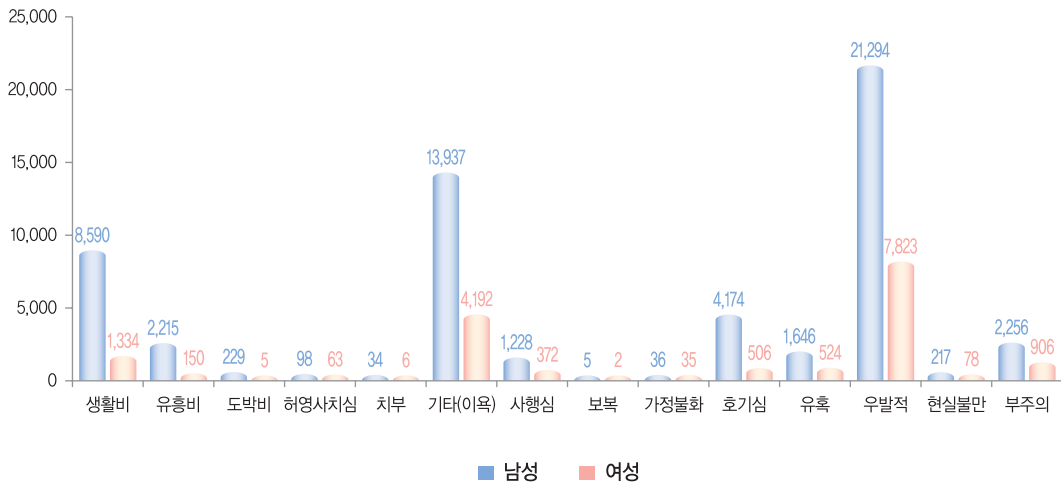


<표 - 63> 절도 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구 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8,590	10.5	1,334	5.4	9,924	9.3
유혹비		2,215	2.7	150	0.6	2,365	2.2
도박비		229	0.3	5	0.0	234	0.2
허영사치심		98	0.1	63	0.3	161	0.2
치부		34	0.0	6	0.0	40	0.0
기타(이욕)		13,937	17.0	4,192	17.0	18,129	17.0
사행심		1,228	1.5	372	1.5	1,600	1.5
보복		5	0.0	2	0.0	7	0.0
가정불화		36	0.0	35	0.1	71	0.1
호기심		4,174	5.1	506	2.1	4,680	4.4
유혹		1,646	2.0	524	2.1	2,170	2.0
우발적		21,294	26.0	7,823	32.0	29,117	27.4
현실불만		217	0.3	78	0.3	295	0.3
부주의		2,256	2.8	906	3.7	3,162	3.0
기타		19,295	23.5	6,218	25.4	25,513	24.0
미상		6,682	8.2	2,265	9.3	8,947	8.4
계		81,936	100.0	24,479	100.0	106,415	100.0

<그림 - 67> 절도 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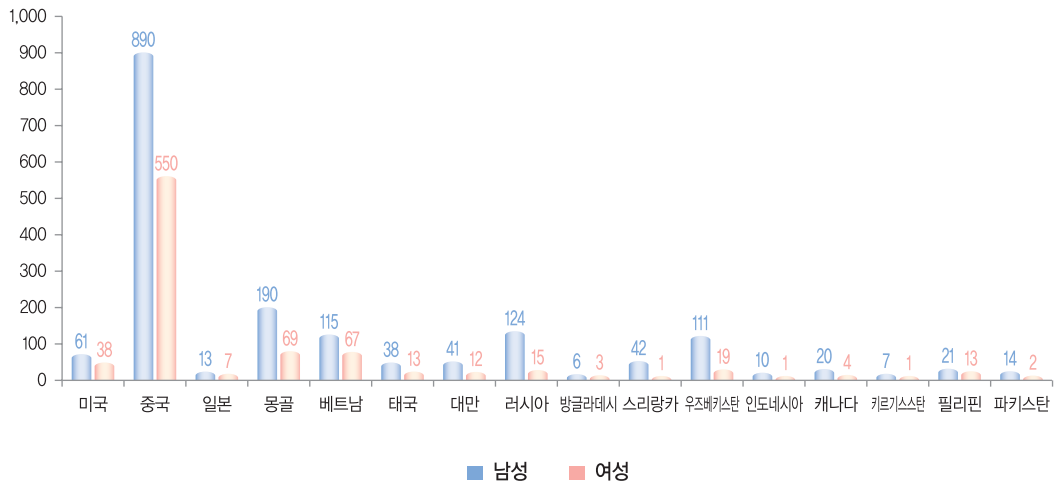
- 절도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의 비율이 27.4%로 가장 높고, 기타 이욕으로 인한 경우 17.0%,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우 9.3% 순으로 나타남
- 남성 절도범죄자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 26.0%, 기타 이욕으로 인해 17.0%,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우가 10.5% 순으로 나타남. 여성 절도범죄자의 경우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나 남성과 같이 우발적인 범행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32.0%), 기타 이욕으로 인한 경우 17.0%,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우 5.4% 순으로 나타남

〈표 - 64〉 절도 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국적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79,984	97.6	23,620	96.5	103,604	97.4
미국		61	0.1	38	0.2	99	0.1
중국		890	1.1	550	2.2	1,440	1.4
일본		13	0.0	7	0.0	20	0.0
몽골		190	0.2	69	0.3	259	0.2
베트남		115	0.1	67	0.3	182	0.2
태국		38	0.0	13	0.1	51	0.0
대만		41	0.1	12	0.0	53	0.0
러시아		124	0.2	15	0.1	139	0.1
방글라데시		6	0.0	3	0.0	9	0.0
스리랑카		42	0.1	1	0.0	43	0.0
우즈베키스탄		111	0.1	19	0.1	130	0.1
인도네시아		10	0.0	1	0.0	11	0.0
캐나다		20	0.0	4	0.0	24	0.0
키르기스스탄		7	0.0	1	0.0	8	0.0
필리핀		21	0.0	13	0.1	34	0.0
파키스탄		14	0.0	2	0.0	16	0.0
기타		249	0.3	44	0.2	293	0.3
계		81,936	100.0	24,479	100.0	106,415	100.0

〈그림 - 68〉 절도 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기타제외, 단위: 명)



- 절도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인이 103,604명(97.4%), 외국인인 2,811명(2.6%)임. 외국인 중에서 중국이 1,440명(1.4%)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 259명(0.2%), 베트남 182명(0.2%) 순으로 나타남

## 마.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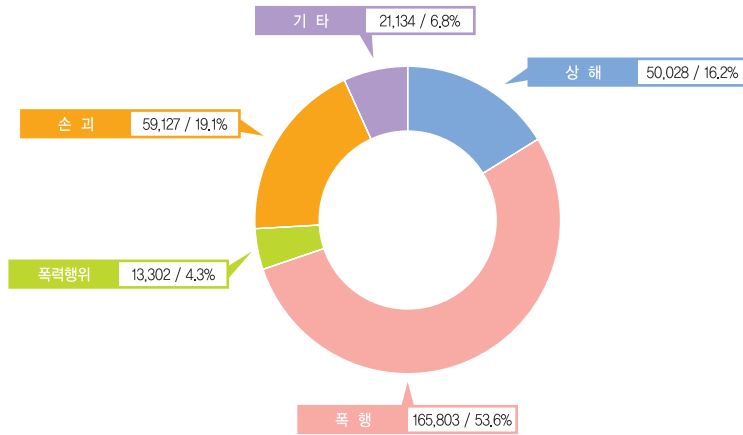
〈표 - 65〉 폭력범죄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

죄 종	구 분	발생건수	구성비
	상해	50,028	16.2
	폭행	165,803	53.6
	폭력행위	13,302	4.3
	손괴	59,127	19.1
	기타	21,134	6.8
	계	309,394	100.0

※ 기타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그림 - 69〉 폭력범죄의 유형별 분포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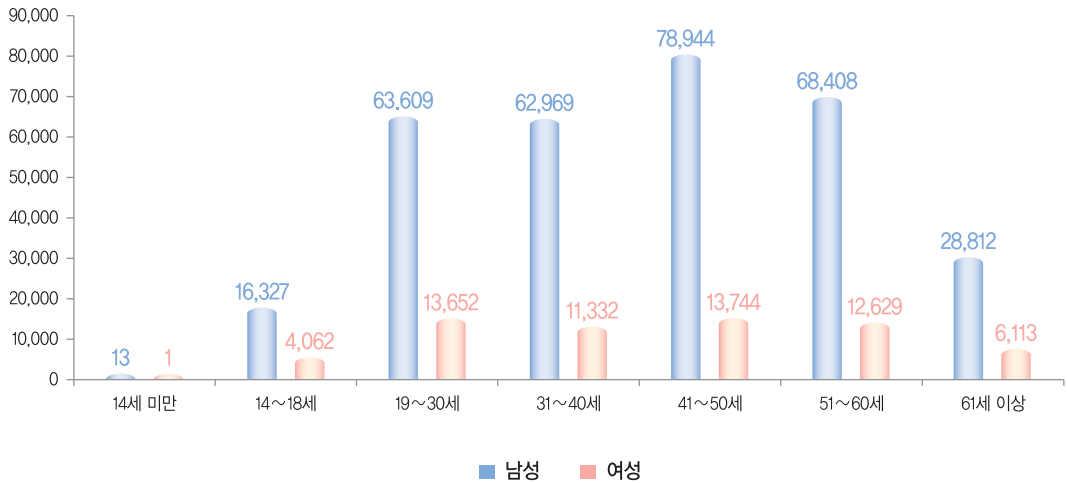
- 폭력범죄의 경우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손괴죄, 기타 폭력범죄를 포함함
- 폭력범죄의 유형은 폭행이 53.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손괴 19.1%, 상해 16.2% 순으로 나타남

〈표 - 66〉 폭력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

단위 : 명,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세 미만		13	0.0	1	0.0	14	0.0
14 - 18세		16,327	5.1	4,062	6.6	20,389	5.4
19 - 30세		63,609	19.9	13,652	22.1	77,261	20.3
31 - 40세		62,969	19.7	11,332	18.4	74,301	19.5
41 - 50세		78,944	24.7	13,744	22.3	92,688	24.3
51 - 60세		68,408	21.4	12,629	20.5	81,037	21.3
61세 이상		28,812	9.0	6,113	9.9	34,925	9.2
미상		215	0.1	135	0.2	350	0.1
계		319,297	100.0	61,668	100.0	380,965	100.0

〈그림 - 70〉 폭력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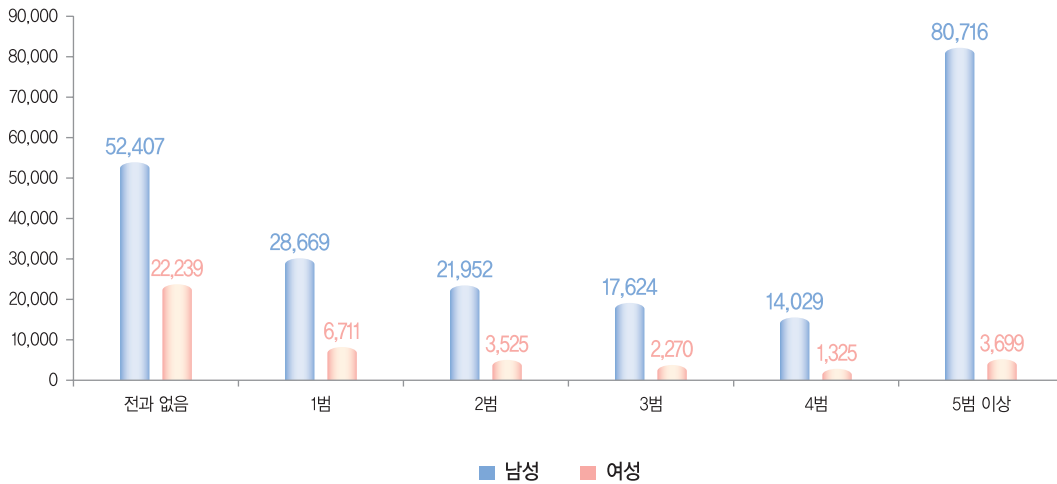
- 폭력범죄자는 남성이 83.8%, 여성이 16.2%로 남성이 5.2배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3%로 가장 비율이 높고, 50대 21.3%, 20대(19-30세) 20.3% 순으로 나타남
- 남성 폭력범죄자의 경우 40대가 24.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21.4%, 20대(19-30세) 19.9% 순인 반면, 여성의 경우 40대 22.3%, 20대(19-30세) 22.1%, 50대 20.5% 순으로 나타남

<표 - 67> 폭력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52,407	16.4	22,239	36.1	74,646	19.6
1범		28,669	9.0	6,711	10.9	35,380	9.3
2범		21,952	6.9	3,525	5.7	25,477	6.7
3범		17,624	5.5	2,270	3.7	19,894	5.2
4범		14,029	4.4	1,325	2.1	15,354	4.0
5범 이상		80,716	25.3	3,699	6.0	84,415	22.2
미상		103,900	32.5	21,899	35.5	125,799	33.0
계		319,297	100.0	61,668	100.0	380,965	100.0

<그림 - 71> 폭력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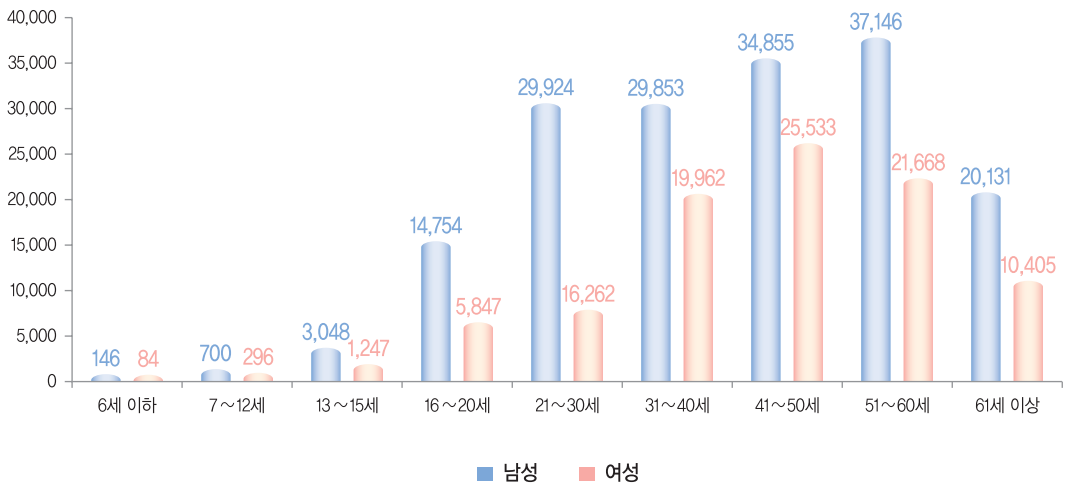
- 폭력범죄자의 전과횟수는 남성의 경우 과반수인 51.1%가 전과자(1범 이상)이고, 특히 5범 이상의 비율이 25.3%로 높게 나타남 (미상 32.5%)
- 여성의 경우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율이 36.1%로 높고, 전과자(1범 이상)의 비율은 28.4%로 나타남(미상 35.5%)

<표 - 68>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146	0.1	84	0.1	0	0.0	230	0.1
7 - 12세		700	0.4	296	0.3	11	0.0	1,007	0.3
13 - 15세		3,048	1.8	1,247	1.2	21	0.1	4,316	1.4
16 - 20세		14,754	8.6	5,847	5.8	6	0.0	20,607	6.7
21 - 30세		29,924	17.5	16,262	16.1	19	0.1	46,205	14.9
31 - 40세		29,853	17.5	19,962	19.7	19	0.1	49,834	16.1
41 - 50세		34,855	20.4	25,533	25.2	12	0.0	60,400	19.5
51 - 60세		37,146	21.8	21,668	21.4	14	0.0	58,828	19.0
61세 이상		20,131	11.8	10,405	10.3	11	0.0	30,547	9.9
미상		68	0.0	16	0.0	37,336	99.7	37,420	12.1
계		170,625	100.0	101,320	100.0	37,449	100.0	309,394	100.0

<그림 - 72>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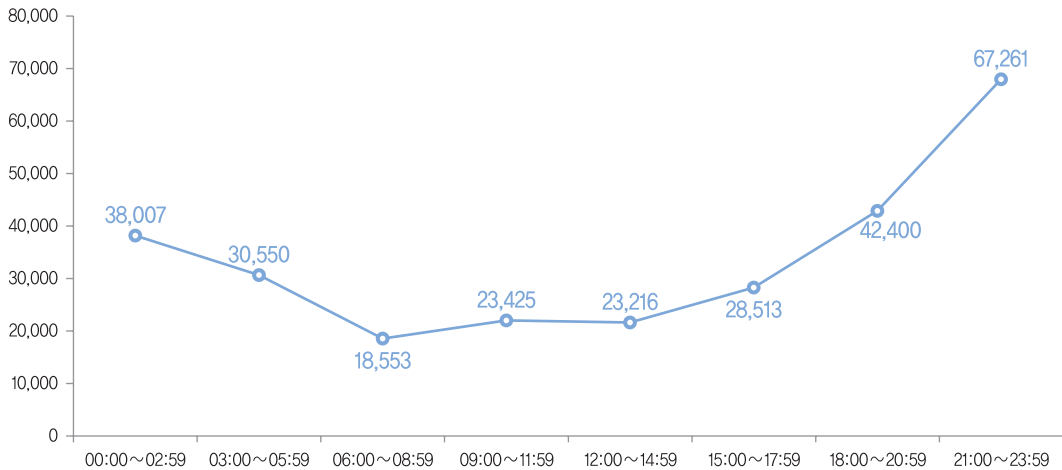
- 폭력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55.1%, 여성이 32.7%로,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성별 불상자는 12.1%)
- 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대는 40대 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50대 19.0%, 30대 16.1% 순으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50대 (21.8%), 여성의 경우 40대(25.2%)의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임

<표 - 69> 폭력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00 ~ 02:59		38,007	12.3
03:00 ~ 05:59		30,550	9.9
06:00 ~ 08:59		18,553	6.0
09:00 ~ 11:59		23,425	7.6
12:00 ~ 14:59		23,216	7.5
15:00 ~ 17:59		28,513	9.2
18:00 ~ 20:59		42,400	13.7
21:00 ~ 23:59		67,261	21.7
미상		37,469	12.1
계		309,394	100.0

<그림 - 73> 폭력범죄 발생시간 (미상제외, 단위: 건)



- 폭력범죄의 발생시간은 21:00~23:59 시간대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18:00~20:59 시간대 13.7%, 00:00~02:59 시간대 12.3%의 순으로 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음
- 06:00~08:59 시간대에 발생 비율이 가장 낮았고, 이후 15:00~17:59 시간대까지 낮은 발생 수준을 유지하다가 18:00~20:59 시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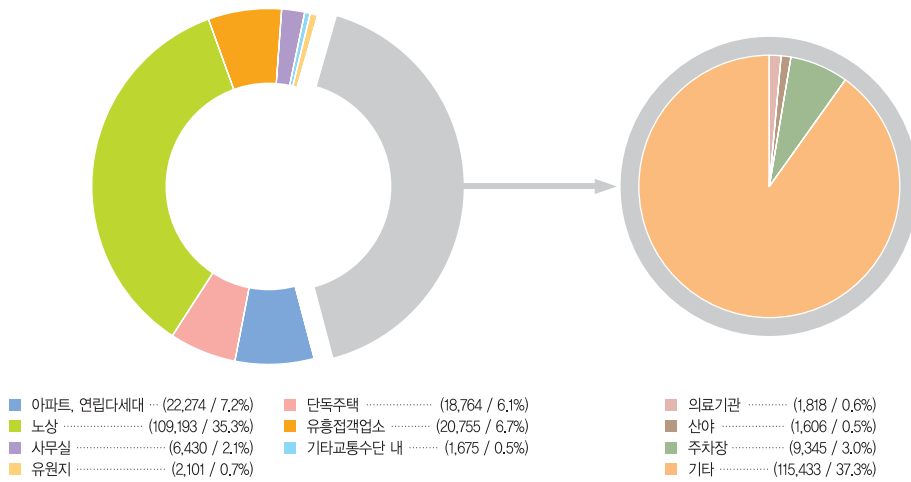
〈표 - 70〉 폭력범죄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아파트·연립다세대		22,274	7.2
단독주택		18,764	6.1
노상		109,193	35.3
유형접객업소		20,755	6.7
사무실		6,430	2.1
기타교통수단 내		1,675	0.5
유원지		2,101	0.7
의료기관		1,818	0.6
산야		1,606	0.5
주차장		9,345	3.0
기타		115,433	37.3
계		309,394	100.0

※ 발생건수 기준 상위 10순위까지 발생장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장소는 기타\*로 재분류함

〈그림 - 74〉 폭력범죄 발생장소 (미상 제외, 단위: 건)



- 폭력범죄의 발생장소는 노상의 비율이 35.3%로 현저히 높았고, 아파트·연립다세대 7.2%, 유형접객업소 6.7%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단독주택(6.1%), 주차장(3.0%), 사무실(2.1%)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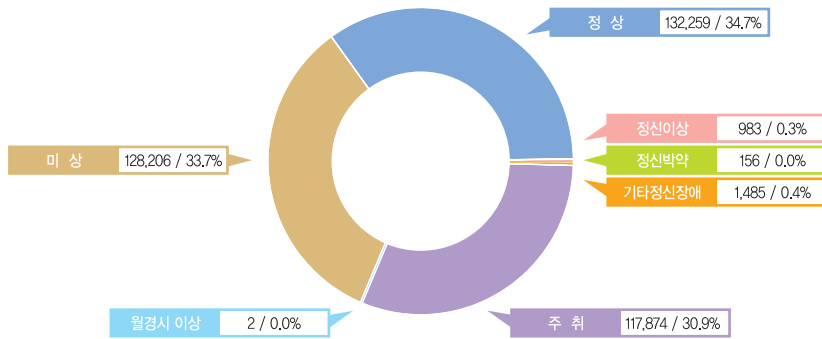


<표 - 71> 폭력범죄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명, %

정신상태	구분	검거인원	구성비
정상		132,259	34.7
정신이상		983	0.3
정신박약		156	0.0
기타정신장애		1,485	0.4
주취		117,874	30.9
월경시 이상		2	0.0
미상		128,206	33.7
계		380,965	100.0

<그림 - 75> 폭력범죄 범행시 정신상태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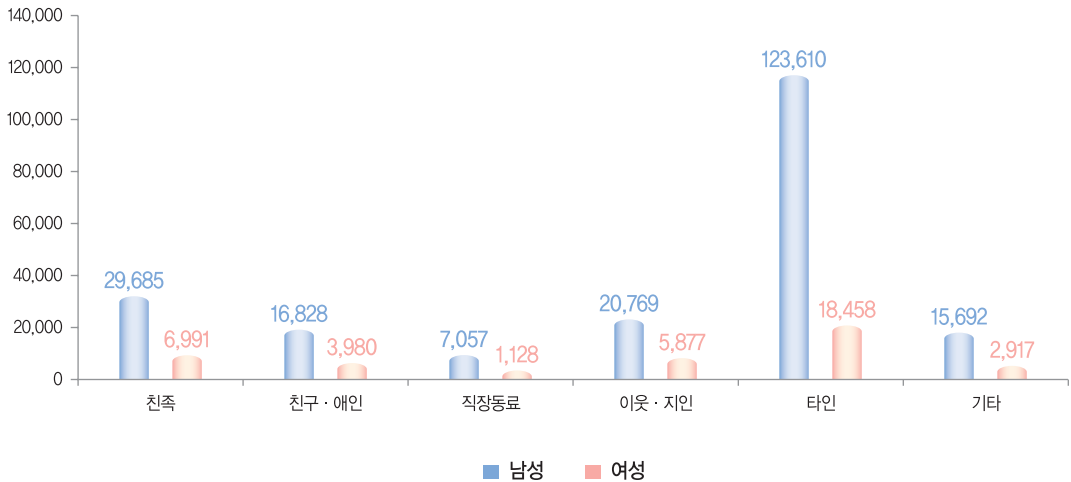
- 폭력범죄의 범행시 정신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34.7%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0.7%(정신이상 0.3%, 정신박약 0.0%, 기타정신장애 0.4%)로 다른 지표범죄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주취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30.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 72〉 폭력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명, %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29,685	9.3	6,991	11.3	36,676	9.6
친구·애인		16,828	5.3	3,980	6.5	20,808	5.5
직장동료		7,057	2.2	1,128	1.8	8,185	2.1
이웃·지인		20,769	6.5	5,877	9.5	26,646	7.0
타인		123,610	38.7	18,458	29.9	142,068	37.3
기타		15,692	4.9	2,917	4.7	18,609	4.9
미상		105,656	33.1	22,317	36.2	127,973	33.6
계		319,297	100.0	61,668	100.0	380,965	100.0

〈그림 - 76〉 폭력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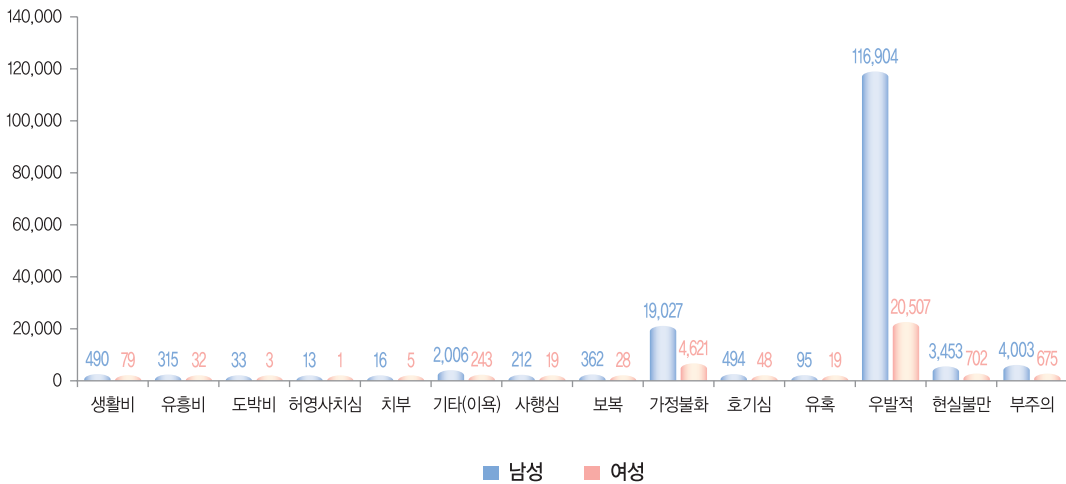
- 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이 대상인 경우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친족 대상 9.6%, 이웃·지인 대상 7.0% 순으로 나타남
-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남성(38.7%)과 여성(29.9%)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웃·지인(9.5%), 친구·애인(6.5%), 친족(11.3%) 등 면식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율이 높음

〈표 - 73〉 폭력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490	0.2	79	0.1	569	0.1
유혹비		315	0.1	32	0.1	347	0.1
도박비		33	0.0	3	0.0	36	0.0
허영사치심		13	0.0	1	0.0	14	0.0
치부		16	0.0	5	0.0	21	0.0
기타(이욕)		2,006	0.6	243	0.4	2,249	0.6
사행심		212	0.1	19	0.0	231	0.1
보복		362	0.1	28	0.0	390	0.1
가정불화		19,027	6.0	4,621	7.5	23,648	6.2
호기심		494	0.2	48	0.1	542	0.1
유혹		95	0.0	19	0.0	114	0.0
우발적		116,904	36.6	20,507	33.3	137,411	36.1
현실불만		3,453	1.1	702	1.1	4,155	1.1
부주의		4,003	1.3	675	1.1	4,678	1.2
기타		65,860	20.6	12,270	19.9	78,130	20.5
미상		106,014	33.2	22,416	36.3	128,430	33.7
계		319,297	100.0	61,668	100.0	380,965	100.0

〈그림 - 77〉 폭력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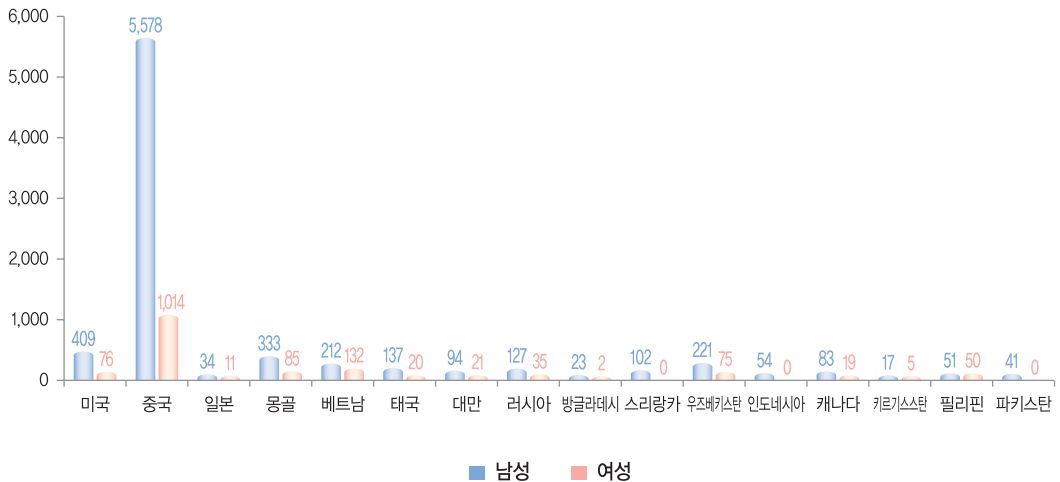
- 폭력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율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불화 6.2%, 부주의 1.2%, 현실불만 1.1% 순으로 나타남
- 남성 폭력범죄자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고, 가정불화가 6.0%, 부주의 1.3%로 나타남. 여성 폭력범죄자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 33.3%, 가정불화 7.5%, 부주의 1.1%로 나타나,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음

〈표 - 74〉 폭력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국적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311,195	97.5	60,059	97.4	371,254	97.5
미국		409	0.1	76	0.1	485	0.1
중국		5,578	1.7	1,014	1.6	6,592	1.7
일본		34	0.0	11	0.0	45	0.0
몽골		333	0.1	85	0.1	418	0.1
베트남		212	0.1	132	0.2	344	0.1
태국		137	0.0	20	0.0	157	0.0
대만		94	0.0	21	0.0	115	0.0
러시아		127	0.0	35	0.1	162	0.0
방글라데시		23	0.0	2	0.0	25	0.0
스리랑카		102	0.0	0	0.0	102	0.0
우즈베키스탄		221	0.1	75	0.1	296	0.1
인도네시아		54	0.0	0	0.0	54	0.0
캐나다		83	0.0	19	0.0	102	0.0
키르기스스탄		17	0.0	5	0.0	22	0.0
필리핀		51	0.0	50	0.1	101	0.0
파키스탄		41	0.0	0	0.0	41	0.0
기타		586	0.2	64	0.1	650	0.2
계		319,297	100.0	61,668	100.0	380,965	100.0

〈그림 - 78〉 폭력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기타 제외, 단위: 명)



- 폭력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인이 371,254명(97.5%)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외국인 9,711명(2.5%) 중 중국 6,592명(1.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485명(0.1%), 몽골 418명(0.1%), 베트남 344명(0.1%)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중국 5,578명(1.7%), 미국 409명(0.1%) 몽골 333명(0.1%) 순이며, 여성은 중국 1,014명(1.6%), 베트남 132명(0.2%), 몽골 85명(0.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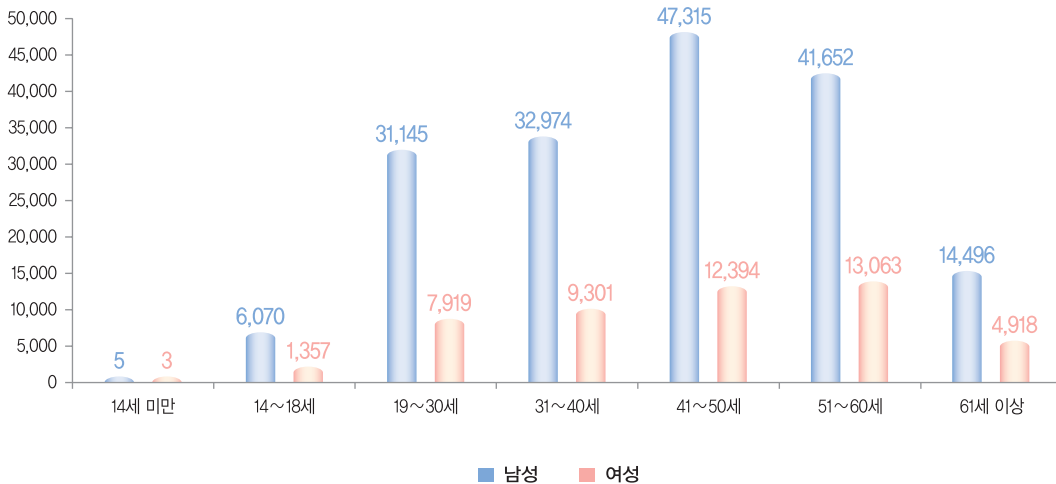
## 바. 사기

〈표 - 75〉 사기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명,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14세 미만		5	0.0	3	0.0	8	0.0
14 - 18세		6,070	3.5	1,357	2.7	7,427	3.3
19 - 30세		31,145	17.9	7,919	16.0	39,064	17.5
31 - 40세		32,974	19.0	9,301	18.8	42,275	18.9
41 - 50세		47,315	27.2	12,394	25.1	59,709	26.8
51 - 60세		41,652	24.0	13,063	26.5	54,715	24.5
61세 이상		14,496	8.3	4,918	10.0	19,414	8.7
미상		168	0.1	430	0.9	598	0.3
계		173,825	100.0	49,385	100.0	223,210	100.0

〈그림 - 79〉 사기범죄자 성별 연령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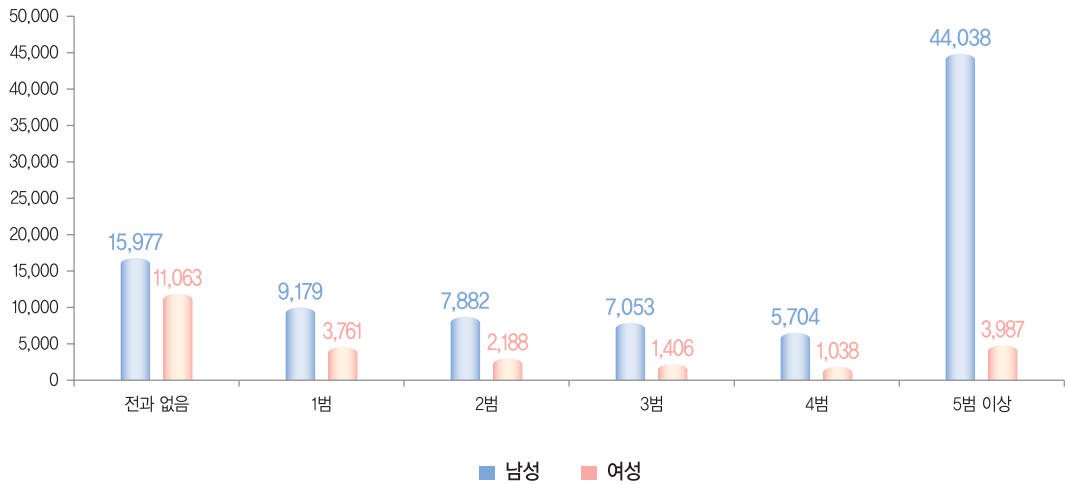
- 사기범죄자는 남성이 77.9%, 여성이 22.1%로 남성이 여성의 3.5배로 나타났음. 연령별로는 40대의 비율이 26.8%로 가장 높고, 50대 24.5%, 30대 18.9%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40대 비율이 27.2%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50대가 2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 76〉 사기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단위 : 명, %

전과횟수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전과 없음		15,977	9.2	11,063	22.4	27,040	12.1
1범		9,179	5.3	3,761	7.6	12,940	5.8
2범		7,882	4.5	2,188	4.4	10,070	4.5
3범		7,053	4.1	1,406	2.8	8,459	3.8
4범		5,704	3.3	1,038	2.1	6,742	3.0
5범 이상		44,038	25.3	3,987	8.1	48,025	21.5
미상		83,992	48.3	25,942	52.5	109,934	49.3
계		173,825	100.0	49,385	100.0	223,210	100.0

〈그림 - 80〉 사기범죄자 성별 전과횟수 분포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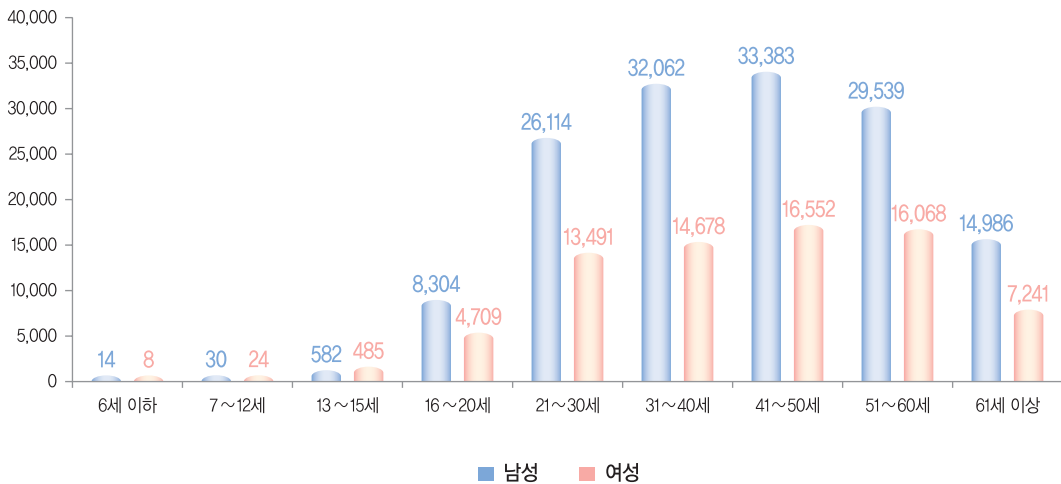
- 사기범죄자의 전과횟수는 남성의 경우 전과자(1범 이상)의 비율이 42.5%로 높았으며, 미상이 48.3%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높은 비율임. 반면, 여성의 경우 미상인 52.5%를 제외하고 전과자(1범 이상)의 비율은 25.1%. 전과가 없는 범죄자 비율이 22.4%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5범 이상의 비율은 남성이 25.3%로 여성의 8.1%보다 3.1배 높은 수준임

<표 - 77> 사기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건, %

연령	구분	남성		여성		불상		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6세 이하		14	0.0	8	0.0	3	0.0	25	0.0
7 - 12세		30	0.0	24	0.0	1	0.0	55	0.0
13 - 15세		582	0.4	485	0.7	51	0.2	1,118	0.5
16 - 20세		8,304	5.7	4,709	6.4	28	0.1	13,041	5.4
21 - 30세		26,114	18.0	13,491	18.4	27	0.1	39,632	16.4
31 - 40세		32,062	22.1	14,678	20.0	22	0.1	46,762	19.4
41 - 50세		33,383	23.0	16,552	22.6	28	0.1	49,963	20.7
51 - 60세		29,539	20.3	16,068	21.9	9	0.0	45,616	18.9
61세 이상		14,986	10.3	7,241	9.9	8	0.0	22,235	9.2
미상		166	0.1	28	0.0	22,972	99.2	23,166	9.6
계		145,180	100.0	73,284	100.0	23,149	100.0	241,613	100.0

<그림 - 81> 사기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분포 (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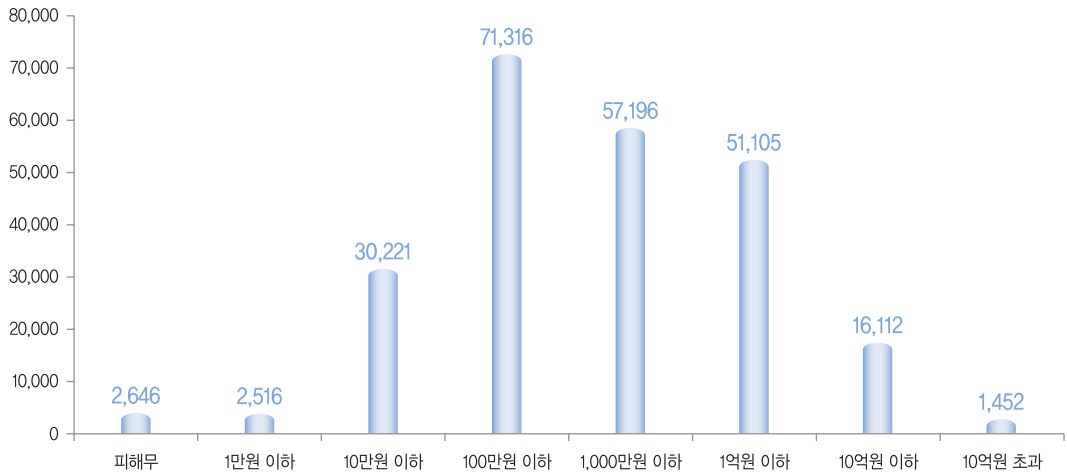
- 사기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60.1%, 여성이 30.3%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피해율이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성별 불상자는 9.6%)
-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대는 40대가 20.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30대 19.4%, 50대 18.9%, 20대 16.4% 순으로 나타남

〈표 - 78〉 사기범죄 피해금액

단위 : 건, %

피해금액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피해무		2,646	1.1
1만원 이하		2,516	1.0
10만원 이하		30,221	12.5
100만원 이하		71,316	29.5
1,000만원 이하		57,196	23.7
1억원 이하		51,105	21.2
10억원 이하		16,112	6.7
10억원 초과		1,452	0.6
미상		9,049	3.7
계		241,613	100.0

〈그림 - 82〉 사기범죄 피해금액 (미상 제외, 단위: 건)



-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29.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1,000만원 이하 23.7%, 1억원 이하 21.2% 순으로 나타남
- 사기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피해가 없는 피해자의 비율은 1.1%였으며,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0.6%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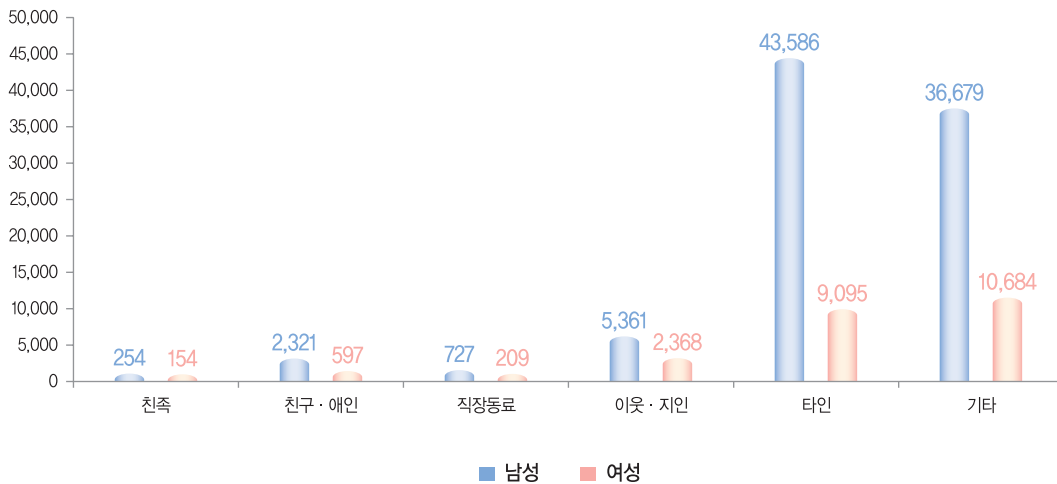


<표 - 79> 사기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명, %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친족		254	0.1	154	0.3	408	0.2
친구·애인		2,321	1.3	597	1.2	2,918	1.3
직장동료		727	0.4	209	0.4	936	0.4
이웃·지인		5,361	3.1	2,368	4.8	7,729	3.5
타인		43,586	25.1	9,095	18.4	52,681	23.6
기타		36,679	21.1	10,684	21.6	47,363	21.2
미상		84,897	48.8	26,278	53.2	111,175	49.8
계		173,825	100.0	49,385	100.0	223,210	100.0

<그림 - 83> 사기범죄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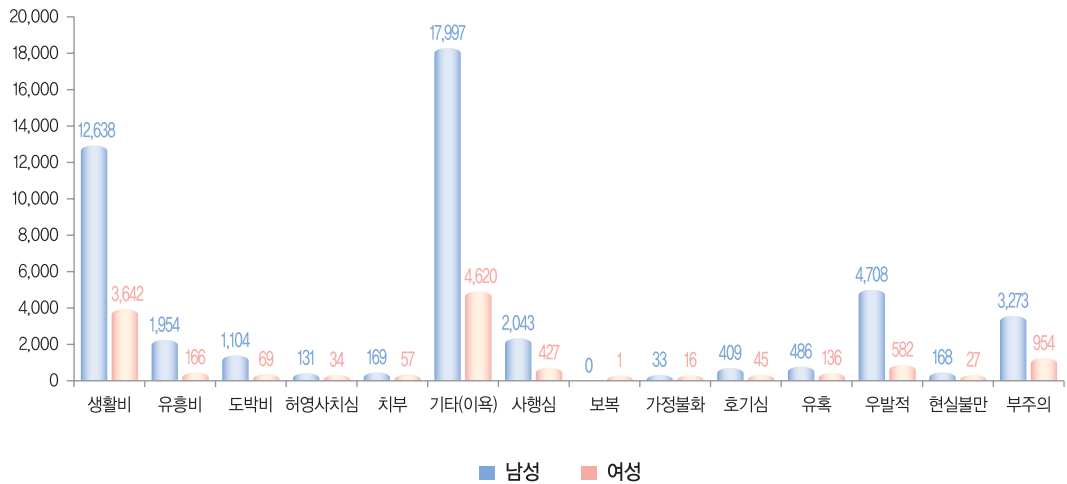
- 사기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미상인 경우(49.8%)를 제외하면, 타인이 대상인 경우가 23.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이웃·지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3.5%로 나타남
- 남성(25.1%)과 여성(18.4%) 모두 타인이 대상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웃·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았음

〈표 - 80〉 사기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분포

단위 : 명, %

범행동기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생활비		12,638	7.3	3,642	7.4	16,280	7.3
유혹비		1,954	1.1	166	0.3	2,120	0.9
도박비		1,104	0.6	69	0.1	1,173	0.5
허영사치심		131	0.1	34	0.1	165	0.1
치부		169	0.1	57	0.1	226	0.1
기타(이욕)		17,997	10.4	4,620	9.4	22,617	10.1
사행심		2,043	1.2	427	0.9	2,470	1.1
보복		0	0.0	1	0.0	1	0.0
가정불화		33	0.0	16	0.0	49	0.0
호기심		409	0.2	45	0.1	454	0.2
유혹		486	0.3	136	0.3	622	0.3
우발적		4,708	2.7	582	1.2	5,290	2.4
현실불만		168	0.1	27	0.1	195	0.1
부주의		3,273	1.9	954	1.9	4,227	1.9
기타		43,462	25.0	12,240	24.8	55,702	25.0
미상		85,250	49.0	26,369	53.4	111,619	50.0
계		173,825	100.0	49,385	100.0	223,210	100.0

〈그림 - 84〉 사기범죄자 성별 범행동기 (기타·미상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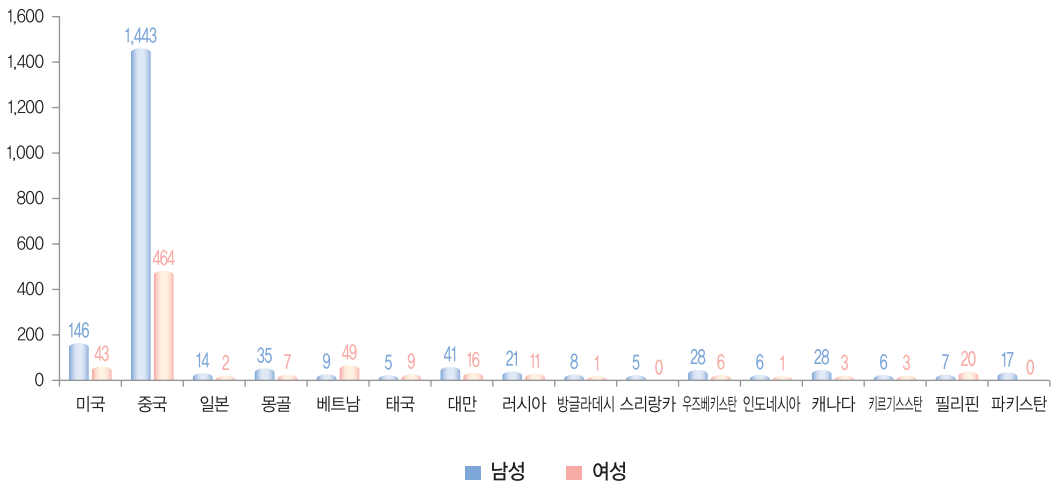
- 사기범죄자의 범행동기는 미상인 경우 50%를 제외하고, 기타 이욕의 비율이 10.1%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우 7.3%, 우발적인 경우 2.4%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 경우가 25.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사기범죄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

<표 - 81> 폭력범죄자 성별 국적 분포

단위 : 명, %

국적	구분	남성		여성		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검거인원	구성비
한국		171,866	98.9	48,695	98.6	220,561	98.8
미국		146	0.1	43	0.1	189	0.1
중국		1,443	0.8	464	0.9	1,907	0.9
일본		14	0.0	2	0.0	16	0.0
몽골		35	0.0	7	0.0	42	0.0
베트남		9	0.0	49	0.1	58	0.0
태국		5	0.0	9	0.0	14	0.0
대만		41	0.0	16	0.0	57	0.0
러시아		21	0.0	11	0.0	32	0.0
방글라데시		8	0.0	1	0.0	9	0.0
스리랑카		5	0.0	0	0.0	5	0.0
우즈베키스탄		28	0.0	6	0.0	34	0.0
인도네시아		6	0.0	1	0.0	7	0.0
캐나다		28	0.0	3	0.0	31	0.0
키르기스스탄		6	0.0	3	0.0	9	0.0
필리핀		7	0.0	20	0.0	27	0.0
파키스탄		17	0.0	0	0.0	17	0.0
기타		140	0.1	55	0.1	195	0.1
계		173,825	100.0	49,385	100.0	223,210	100.0

<그림 - 85> 사기 범죄자 성별 국적 (한국 기타 제외, 단위: 명)



- 사기범죄자의 국적은 한국이 220,561명(98.8%)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외국인은 2,649명(1.2%)에 불과하였음. 외국인 중 중국이 1,907명(0.9%)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89명(0.1%) 순으로 나타남
- 남성 사기범죄자 중 중국인이 1,443명, 미국이 146명, 대만 41명 순으로 나타남. 여성 사기범죄자 중에는 중국인 464명, 베트남 49명, 미국 43명 순으로 나타남